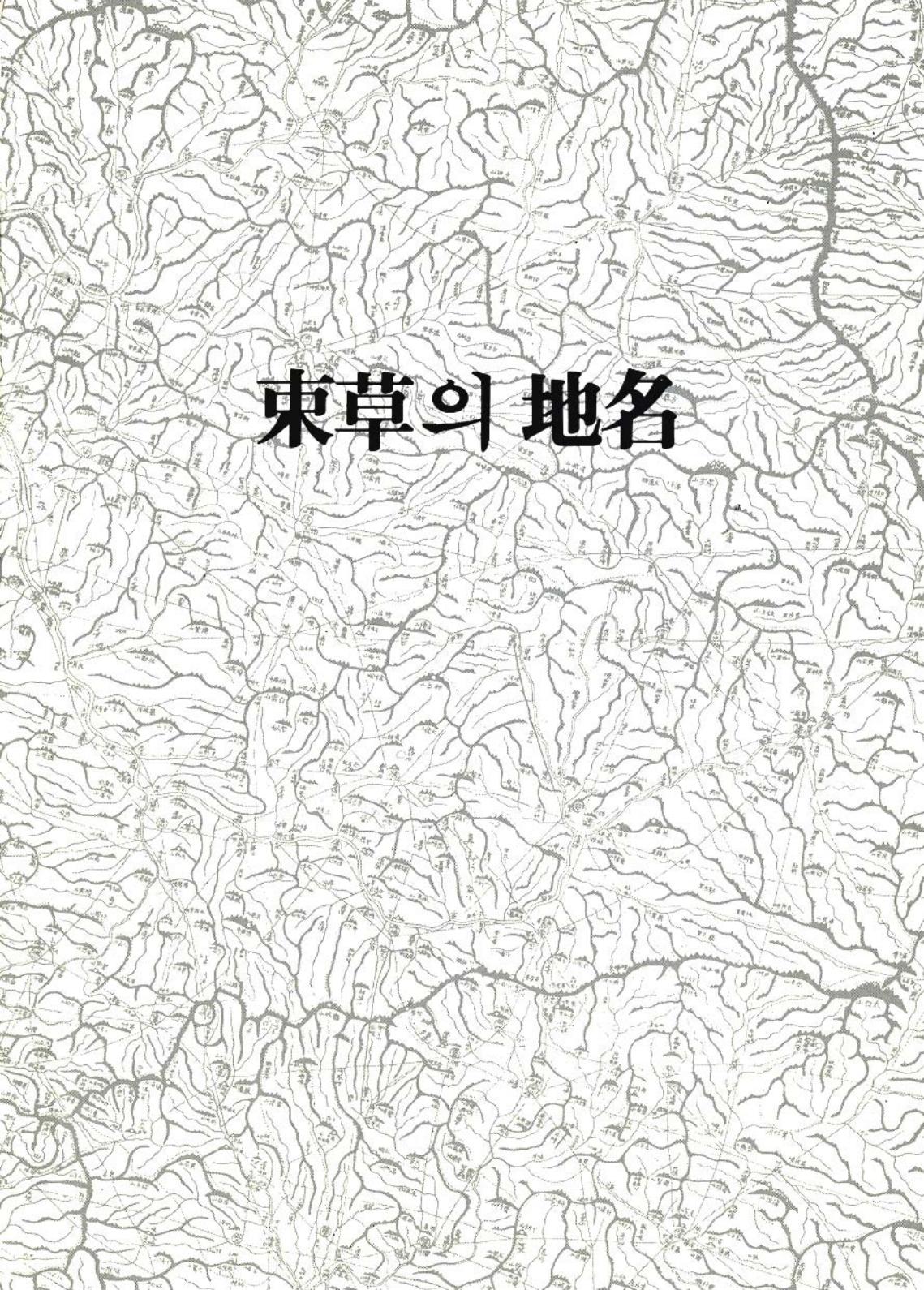


束草의 地名



束草文化院



束草의 地名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藝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特質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荣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차 례

발 간 사	3
머 리 말	4
1. 속초(束草)의 연혁(沿革)	5
(1)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의 속초(束草)	7
(2) 대포영(大浦營) 문제	11
(3) 일제시대(日帝時代) 이후의 속초(束草)	14
(4) '속초(束草)' 지명의 유래	17
2. 시내 중심부	21
(1) 영랑동(永郎洞)	28
(2) 동명동(東明洞)	29
(3) 중앙동(中央洞)	34
(4) 금호동(琴湖洞)	35
(5) 청학동(青鶴洞)	36
(6) 교동(校洞)	36
(7) 청호동(青湖洞)	37
3. 조양동(朝陽洞)	39
(1) 부월리(扶月里)	42
(2) 온정리(溫井里)	43
(3) 논산리(論山里)	44
(4) 청대리(青垈里)	46
4. 대포동(大浦洞)	49
(1) 대포리(大浦里)	51
(2) 외옹치리(外甕峙里)	53
(3) 내물치리(內勿淄里)	55
5. 도문동(道門洞)	61
(1) 상도문리(上道門里)	64
(2) 중도문리(中道門里)	65

(3) 하도문리(下道門里)	66
6. 설악동(雪嶽洞)	69
(1) 설악(雪嶽) 관광 단지 일대	71
(2) 설악산(雪嶽山)	78
① 능선, 고개, 길	80
② 봉(峰)	82
③ 바위, 대(臺), 굴	85
④ 골짜기	91
⑤ 폭포, 담(潭)	93
(3) 신흥사(神興寺)	95
(4) 장재터	98
7. 노학동(蘆鶴洞)	101
(1) 노리(蘆里)	104
(2) 응골	104
(3) 도리원리(桃李源里)	106
(4) 이목리(梨木里)	106
(5) 척산리(尺山里)	108
(6) 신흥리(新興里)	111
(7)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112
8. 장사동(章沙洞)	117
(1) 사진리(沙津里)	119
(2) 장천리(章川里)	122

발 간 사

속초문화원장 지 일 권



우리가 터 잡고 사는 이 마을에 대해 사실 우리는 별로 잘 알지 못합니다. 골짜기마다 사연이 서려있고, 바위마다 전설이 어려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자신있게 들려줄 이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향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구든 덜하고 더함이 없을 것 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빼와 살을 준 자기 향토에 대해 그 역사와 풍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은 향토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은 아직 이런 향토사에 관한 연구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시 형성 과정이 독특하고, 문화적 환경이 빈약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은 하지만, 이것이 그 빈약함을 설명하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젊은 향토사가들이 이런 지역적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속초의 지명” 연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크게 넘지는 못한다고 하나,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조차 없었으며, 추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에, 이 소책자는 충분히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 광범위한 내용, 알찬 해설을 엮어낼 증보판을 계속낼 것임을 약속 드리며, 발간사에 대신합니다.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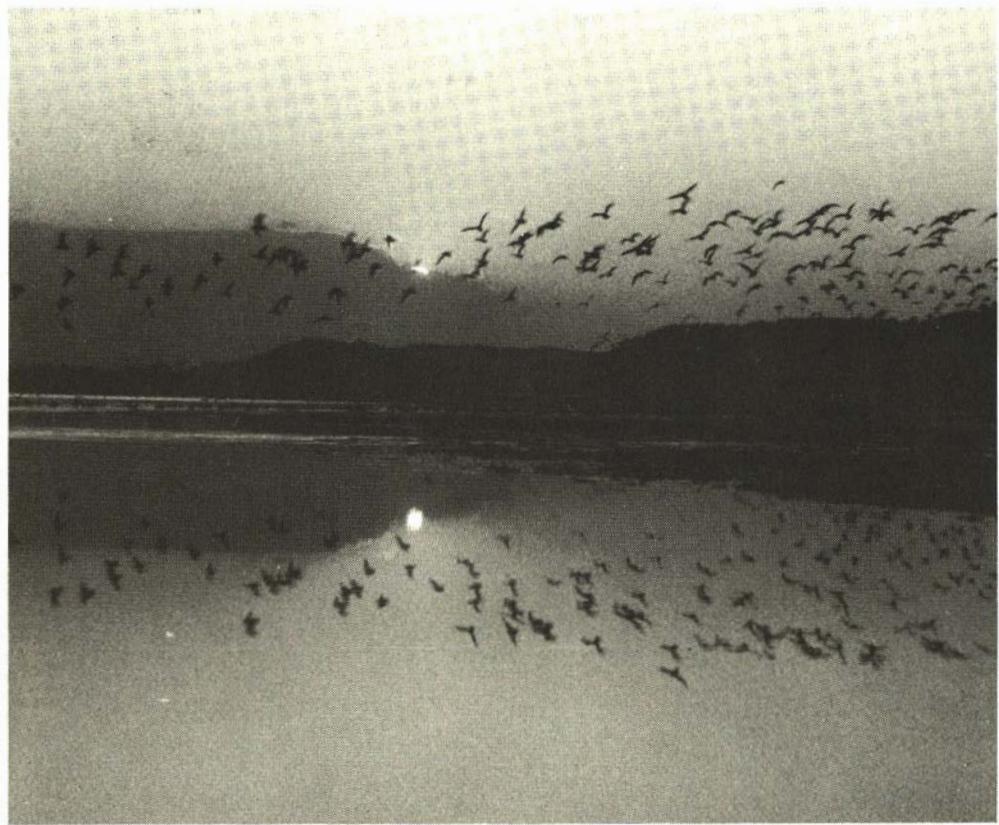
지명(地名)이란 땅이름으로 자연지명, 인공지명이 모두 포함되고, 우리 조상들이 생활해 오면서 불인 것으로, 거기에는 조상들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역사, 풍습, 전통 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명의 정리는 향토사 연구의 기본 과제이다.

그런데 근대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의해서 고유한 우리의 옛 지명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더구나 속초(東草)지방은 옛날 고을 중심지가 아니라 새로이 일어난 신흥 도시인 까닭에 자료가 부족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지명에 대한 조사, 정리, 연구가 거의 없었다. 다만 1967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이 있을 뿐이다. (한글학회에서는 1964년부터 1986년까지 20여년에 걸쳐서 전국의 지명을 조사하여 《한국지명총람》16권을 편찬하였는데, 강원도(江原道)편이 수록된 제2권은 1967년에 편찬되었다.)

본 연구도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에 맞게 개편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래의 의도는 옛 지명을 조사하여 그 유래를 밝힘으로써 그 역사성, 지역성을 밝히고자 했으나 역부족으로 지명의 나열에 그쳤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부족한 점이 보충되고 연구되어 졌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모든 지명을 수록하고자 하였다. 문헌에만 남아 있거나, 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거의 사라져 버린 지명도 물론 수록하였다. 자연지명은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공지명의 경우는 인공물이 모두 지명이 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절, 탑, 비석, 다리 만을 수록하였다. 가급적이면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출처를 밝혔다.

1. 속초의 연혁



1. 속초(束草)의 연혁(沿革)

속초(束草)라는 명칭에 대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朝鮮) 영조(英祖) 36년(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속초리(束草里)’이다.

「속초리(束草里)는 관문(官門)으로 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호(戶)수는 86호(戶)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 (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속초(束草)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들어와 청초호(青草湖)를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 그에 인접한 속초리(束草里)가 점점 커져서 1937년에는 도천면(道川面, 日帝時代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道門面과 所川面이 합쳐져 道川面이 됨.)사무소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面)이름도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어, 속초(束草)는 동리 이름이면서 또한 면(面)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그후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에는 읍(邑),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상복2리(上福二里)까지 포함하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속초(束草)의 연혁(沿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된다.

(1)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의 속초(束草)

속초(束草)가 시(市)로 승격되어 분리되기 전까지 양양(襄陽)에 속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전에는 한 동리에 불과했었다. 속초(束草)의 연혁(沿革)에 대한 일부 기록에, 속초(束草)의 고구려(高句麗) 때 이름이 속토현(束土縣), 신라(新羅) 때 이름이 목속제현(木束堤縣)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

束草의 沿革

선시대		1914. 3. 1	1937. 7. 1	1942. 10. 1	1951. 10	1954. 11. 17	(1966. 1. 1)	1973. 7. 1	1983. 2. 15			
				토성	장천리	장천리	장천리	장천리	장시동			
		사진리	사진리	면	사진리	면	사진리	면	장사동			
소천면	속진리				속초리1구	속초리1구	속초리1구	속초리1구	영랑동	영랑동		
	속초리	속초리			속초리2구	속초리2구	속초리2구	속초리2구	동명동	동명동	동명동	
	부월(포)리	도	속		속초리3구	속초리3구	속초리3구	속초리3구	중양동	중양동	중양동	
	논산리	부월리	속		속초리4구	속초리4구	속초리4구	속초리4구	청호동	청호동	청호동	
	논산리	논산리	속		부월리	부월리	부월리	부월리	금호동	금호동	금호동	
	논산리	노(동)리	초		온정리	온정리	온정리	온정리	청학동	청학동	청학동	
	노(동)리	노(동)리	초		노리	노리	노리	노리	교동	교동	교동	
	대포리	대포리	초		도리원리	도리원리	도리원리	도리원리	조양동	조양동	조양동	
	웅진리	외옹진리	초		이목리	이목리	이목리	이목리				
	물치리	내물치리	초		혁산리	혁산리	혁산리	혁산리				
도문면	상도문리	상도문리	대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중도문리	중도문리	대		외옹진리	외옹진리	외옹진리	외옹진리				
	하도문리	하도문리	포		내물치리	내물치리	내물치리	내물치리				
	신흥사	장항리	포		상도문리	상도문리	상도문리	상도문리				
			시		중도문리	중도문리	중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하도문리	하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설악동	설악동	설악동	
									장현	현	현	
									상복리	상복리	상복리	
									면	면	면	

)》지리지(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명주(溟州) 영현(領縣, 거느리는 현) 중 속토현(東吐縣, 또는 東吐縣이라고도 했음), 촉제현(棟隄縣, 또는 棟隄縣이라고도 했음)의 오류로 생각되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속초(束草)로 비정했는지 알 수 없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당시 어느 곳인지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날의 양양(襄陽)인 익령현(翼嶺

縣)이 오늘날의 간성(杆城)인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인데, 양양(襄陽)보다 북쪽에 위치한 속초(束草)를 오늘날 강릉(江陵)인 명주(溟州)의 영현(領縣)으로는 생각할 수 없겠다.

또 속초(束草)의 연혁(沿革)에 대한 일부 기록에,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속초(束草)에 척(尺)을 설치하여 수군만호(水軍萬戶)를 두어 방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사료에 의거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고, 또 척(尺)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조선(朝鮮)시대 속초(束草)의 호(戶)수와 인구

면	기록사항 동리	문현	1760년 여지도서(輿地圖書)						1870년 경추정 관동읍지(關東邑誌)						
			양방으로 부녀의거리 (리수)	호 (戸) 수	인 구			양방으로 부녀의거리 (리수)	호 (戸) 수	인 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道 門 面	상도문리(上道門里)	30	20	33	33	66	30	61	95	145	240				
	하도문리(下道門里)	25	35	44	82	126	25	24	33	58	91				
	물치리(勿禱里)	20	18	19	33	52	20	21	25	41	66				
	대포리(大浦里)	25	34	35	69	104	25	23	24	42	66				
	옹진리(蠻津里)	25	78	107	131	238	25	35	53	74	127				
	신홍사(神興寺)	40	20	僧49		僧49	50	21	僧38		僧38				
所 川 面	계		205	287	348	635		185	268	360	628				
	논산리(論山里)	30	20	39	58	97	30	38	51	54	105				
	부월리(扶月里)	30	18	48	38	86	35	52	72	105	177				
	속초리(束草里)	35	86	90	182	272	35	47	99	111	210				
	속진리(束津里)	35	58	79	96	175	35	51	70	106	176				
	계		182	256	374	630		188	292	376	668				

면	동리 기록사항	문현		1887년 경주정 양양읍지(襄陽邑誌)			1887년 경주정 양양읍지(襄陽邑誌)		1910년 경주정 현산지(峴山誌)		
		양양으로 부터의거리 (리수)	호 (戸) 수	인구			호 (戸) 수	호 (戸) 수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道 門 面	상도문리(上道門里)	25	57	112	111	223					
	하도문리(下道門里)	20	24	28	42	70					
	물치리(勿繩里)	20	41	69	92	161					
	대포리(大浦里)										
	옹진리(靈津里)	25	29	49	37	86					
	신홍사(神興寺)	50	22	僧48		僧48					
계		173	306	282	588		155	185	237	347	584
所 川 面	논산리(論山里)	30	16	22	57	79					
	부월리(扶月里)	35	51	71	88	159					
	속초리(東草里)	35	77	103	153	256					
	속진리(東津里)	35	35	40	57	97					
계		179	236	355	591		201	182	265	374	639

조선시대(朝鮮時代)부터 면(面), 리(里)제가 실시되었는데, 속초시(束草市) 지역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의 2면(面)으로 되어 있었다. 도문(道門)이란 지명은 지금도 남아 있어 도문동(道門洞)에서 설명이 되겠고, 소천(所川)은 면(面)을 가로질러 흐르던 소야천(所野川)에서 유래된 것이 틀림없다.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되어 쇠산(尺山), 노리(蘆里)를 거쳐 청초호(青草湖)로 유입되는 하천을 지금은 청초천(青草川)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는 소야천(所野川)이라고 했고, 그 일대의 별판을 소야(所野)뜰, 소야(所野)평야라고 했었다. 2면(面)에 대한 조선시대(朝鮮時代) 읍지(邑誌)의 기록사항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여기에서 다음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지명의 변화이다. 부월리(扶月里)의 명칭이 가장 오래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후 읍지(邑誌)에서 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되어 있다. 또 외옹치(外甕峙)의 조선시대(朝鮮時代) 명칭은 웅진(甕津)이었고, 물치(勿淄)의 ‘치(淄)’자가 본래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치(緇)’자였다.

둘째, 속초리(東草里)와 별도로 속진리(東津里)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듯이 속진(東津)은 속초(東草)의 옛이름이라는 것도 염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일제시대(日帝時代)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셋째, 과거에는 대포(大浦)가 속초(東草)보다 컸었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언급하게 될 일제시대(日帝時代) 전반기에 한정된 것이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대포(大浦)도 조그마한 동리였고,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대포(大浦)는 속초(東草) 혹은 옆의 웅진(甕津)보다 인구가 적은 동리였다.

(2) 대포영(大浦營) 문제

속초시(東草市)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속초(東草)의 연혁(沿革)을 설명할 때, 속초(東草)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대포영(大浦營)에 속했고, 대포영(大浦營)이란 해군부대는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대포영(大浦營)이란 해군부대가 있었고, 속초(東草)도 그 부대장인 수군만호(水軍萬戶)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포영(大浦營)의 위치에 유의하지 않고 이름이 같은 것만 생각한 데서 온 오류이다. 더우기 이렇게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일제시대(日帝時代) 전반기에 속초리(東草里)가 속했던 도천면(道川面) 소재지가 대포(大浦)였으므로, 과거에 속초(東草)는 대포(大浦)에 속했었다는 발상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설사 대

포영(大浦營)이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여도, 그 부대장인 수군만호(水軍萬戶)는 수령(守令), 즉 지방관이 아니므로 속초(東草)가 대포영(大浦營)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겠다.

대포영(大浦營)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포영(大浦營)은 부(府) 동쪽 12리(里)에 있다. 성종(成宗) 21년(1490년)에 강릉(江陵) 안인포(安仁浦)에서 여기로 옮겨 왔다. 수군만호(水軍萬戶) 1명이 있다. 정덕(正德, 중국 明나라 武宗 때의 연호) 경진(庚辰)년 (朝鮮 中宗 15년, 1520년)에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469척(尺)이고, 높이가 12척(尺)이다. (大浦營在府東十二里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水軍萬戶一人正德庚辰築石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

그 후의 기록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끝 부분에 ‘금폐(今廢)’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에는 폐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폐해졌는가? 앞에서 인용한 3기록 중 시대가 가장 앞선 것이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인데,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는 현종(顯宗, 1659~1674) 때 나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늦어도 현종(顯宗) 때에는 폐해진 것을 알 수 있다. 1976년 양양문화원(襄陽文化院) 발행 《향토지》(鄉土誌)에는 광무(光武) 5년(1901년) 《양양읍지》(襄陽邑誌)의 기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인조(仁祖) 4년, 병인(丙寅), 1626년에 방위지가 못된다하여 혁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부터 동쪽 12리(里) 지점인 대포영(大浦營)은 오늘날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날의 양양군(襄陽郡)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 속칭 조산(造山)호수가

그곳이다. 속칭 조산(造山)호수, 예전부터의 명칭 대포(大浦)에 대하여 1976년 양양문화원(襄陽文化院)에서 발행한 《향토지(鄉土誌)》 자연환경, 하천과 호소(湖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포(大浦)： 일명 황포(黃浦)라고 한다. 양양면(襄陽面) 조산리(造山里) 전방 남대천(南大川) 하류구(下流口)에 있다. 파도가 심하면 하구가 막혀서 호수(湖水)가 조산리(造山里) 앞까지 차오른다. 호(湖)의 서북에 대포성(大浦城)이 있었으므로 그 뜻을 따서 대포(大浦, 한개목)라 명칭하였다고 한다. (실제는 반대로 그곳 지명이 大浦였으므로 해군부대를 大浦營이라고 했을 것이다.) 후포(後浦)는 대포(大浦)와 연접하여 동해묘(東海廟, 국가에서 東海바다 神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이곳에 있었음.) 구지(舊址) 아래에 있으며, 해송이 주위를 싸고 명사(明沙)가 그 밖을 연(連)하여 한 폭의 활화(活畫)를 이루고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였다.」

이것으로 보아도 조산(造山)호수를 예전부터 대포(大浦)라고 하였으며, 그 서북에는 대포성(大浦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도 조산리(造山里)에 성(城) 안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성안밀’, 북쪽문 뒷편 마을이란 의미의 ‘북문뒤’ 등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양양읍지(襄陽邑誌)》에도 조산리(造山里)에 유허비(遺墟碑)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 복원된 동명서원(東溟書院)이 대포성(大浦城) 안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해군부대였던 대포영(大浦營)이 양양군(襄陽郡)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에 위치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막연히 이름이 같은 것만 생각하여 대포영(大浦營)이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위치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배가 정박했던 속칭 조산(造山) 호수는 지금도 마을과 낙산(洛山) 해수욕장 D지구 사이에 남아 있으나, 현재 상태는 과

거와 다르다. 후포(後浦)는 최근 7·80년대에 완전히 매립되어 버렸고, 대포(大浦)도 일부는 매립되어 버렸다. 그러나 남대천(南大川)과 연결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남대천(南大川)의 유로가 지금 보다 북쪽이었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군항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혹자는 오늘날 대포(大浦)에 성(城)터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포영(大浦營) 성(城)터이고, 그러므로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포영(大浦營)은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시대의 성(城)일 것이다. 이 부근에는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성(城)터가 여러개 남아 있다. 194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의하면 양양군(襄陽郡, 당시에는 東草市 포함)에만 성(城)터가 8개 기록되어 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오늘날의 청초호(青草湖)인 쌍성호(雙成湖)설명 중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의 사실이라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사실일 가능성은 많고, 실제로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문헌에 의하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동해안에 동여진(東女眞)과 왜구(倭寇)가 수차례 침입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만호영(萬戶營)일 가능성은 많다. 혹은 더 이전의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대포(大浦)에 남아 있는 성(城)터도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 어느 시대의 성(城)일 것이다.

(3) 일제시대(日帝時代) 이후의 속초(束草)

속초(束草)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이다. 일제(日帝)는 한일합방(韓日合邦) 후 1914. 3. 1 부령(府令) 제 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존의 13도(道)는 그대로 두고, 도(道) 밑의 군(郡)은 317개에서 220개로, 군(郡) 밑의 면(面)도 4,338개에서 2,521개로 통합하였다. 이때 양양군(襄陽郡)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통합되어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그리고 대정(大正) 15년(1926년) 도천면(道川面) 《면세일반(面勢一班)》을 보면 앞의 표에 수록된 11개 동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조선시대(朝鮮時代)와 비교해 보면 몇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속진리(東津里)가 없어졌다.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는 분명히 있었던 속진리(東津里)가 행정동리 명칭에서 사라졌다. 속초리(東草里)와 속진리(東津里)는 인접한 동리였으므로 속진리(東津里)는 속초리(東草里)에 합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읍지(邑誌)에도 두 동리 모두 양양(襄陽)으로부터의 거리가 35리(里)로 같은 기록되어 있다. 또 속진(東津)이란 이름은 속초(東草)를 뜻하는 ‘속(東)’자에 나룻가를 의미하는 ‘진(津)’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도 인접한 동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속초리(東草里)와 속진리(東津里)는 각각 어느 곳을 중심으로 존속했을까? 속초(東草)가 커지기 전까지 속초(東草)의 중심지는 등대에서 수복탑(收復塔) 까지였다. 그후 일시적으로 북쪽 영랑동(永郎洞)쪽으로 발전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발전하여 현시가지를 이루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속초리(東草里), 속진리(東津里) 마을은 모두 등대에서 수복탑(收復塔)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속진(東津)은 나룻가를 뜻하는 ‘진(津)’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등대 부근인 마쪽, 새쪽 마을로 추정되고, 속초리(東草里)는 그 서쪽 수복탑(收復塔) 일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속진(東津)은 행정 동리 명칭에서는 사라졌지만, 그후에도 당분간 계속 불리어졌다. 그리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속초(東草)의 옛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

둘째, 노리(蘆里), 중도문리(中道門里), 장항리(獐項里)가 신설

되었다. 노리(蘆里)는 현재 노학동(蘆鶴洞) 지역으로 과거에 습지 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늘어 분리, 독립되었을 것이고, 이전에는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분명히 상도문리(上道門里)와 하도문리(下道門里) 밖에 없었으나 그 중간에 중도문리(中道門里)가 생겨났다. 장항리(獐項里)는 노루목고개에서 온 지명으로, 노루목고개 일대 즉, 현재 설악산(雪嶽山) 신단지 B지구 일대를 중심으로하여 현재의 설악동(雪嶽洞) 일대를 관할하던 동리였다.

세째, 물치리(勿縚里)가 내물치리(內勿縚里), 옹진리(甕津里)가 외옹치리(外甕峙里)로 변하였다. 물치(勿縚)의 ‘치(縚)’자는 본래 ‘치(縚)’자였던 것이, 이때부터 ‘치(淄)’자로 변하였다.

당시 대포리(大浦里)는 도천면(道川面)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의 교통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 일제시대(日帝時代) 후기에 오면 청초호(青草湖)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청초호(青草湖)에 인접한 속초(束草)가 커져서, 1937. 7. 1 면(面) 소재지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면(面)의 명칭도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 10. 1 부령(府令) 제104호로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束草里)는 1구에서 4구 까지로 나뉘지며, 노리(蘆里)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되어 14개 리(里)가 되었다.

1945. 8. 15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 25사변으로 수복되어 1951년 부터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속초읍(束草邑)이 되었다. 이어서 1951년 10월에는 양양군(襄陽郡) 토성면(土城面, 日帝時代인 1919년 부터 1962년 까지는 襄陽郡에 속했었음)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를 편입하였다. 그러다 1954. 11. 17 법률 제350호인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는 다시 토성면(土城面)으로 넘겨주고, 부월리(扶月里)에서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에서 청대리(青垈里)가 분리되었다. 또 속초리(束草里)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정부의 미개척지 개간 정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타도에서 집단 이주해 와서 뒷버덩에 신흥리(新興里)가 새로 생겨났다.

1963. 1. 1 법률 제1176호에 의해 시(市)로 승격되었고, 1966. 1. 1 동(洞)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束草里) 1구는 영랑동(永郎洞), 2구는 동명동(東明洞), 3구는 중앙동(中央洞), 4구는 금호동(琴湖洞), 5구는 청호동(青湖洞), 6구는 청학동(青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편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青垈里)는 합쳐져서 조양동(朝陽洞)으로,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는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으로, 대포리(大浦里), 외옹치리(外甕峙里), 내물치리(內勿淄里)는 합쳐져서 대포동(大浦洞)으로,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는 합쳐져서 도문동(道門洞)으로, 장항리(獐項里)는 설악동(雪嶽洞)으로 바뀌어 12개 동(洞)이 되었다. 그후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가 편입되어 장사동(章川里)이 되면서 13개 동(洞)으로 늘어났고, 1983. 2. 15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상복2리(上福二里)가 설악동(雪嶽洞)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속초(束草)’지명의 유래

1987년 속초문화원(束草文化院)에서 향토사료 제2집으로 간행한 《속초(束草)의 민속(民俗)》 중에 ‘속초(束草)’ 지명 전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속초(束草)는 ‘묶을 속(束)’자, ‘풀 초(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靈琴亭)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束草)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한다.」

또 1983년 뿌리 깊은 나무 발행 『한국의 발견』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울산 바위 전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속초(束草)’ 지명 유래를 그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조물주가 금강산의 경관을 빼어나게 빚으려고 잘 생긴 바위는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불렀다. 경상남도 울산 땅에 있던 큰 바위도 그 말을 듣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났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서 느릿느릿 가다보니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강산은 다 빚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속초시 땅인 설악산의 한쪽에 눌러 앉고 말았다는 바위가 둘레가 4km에 이르는 울산바위이다.

이 바위 때문에 속초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에 따르면 설악산에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이 울산 바위 아래에 있는 절인 신흥사의 중에게 울산 바위는 제 고을의 바위이니 남의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댓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어느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이 이 바위를 재로 꼬내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 곧 지금의 속초 시가지가 자리잡은 땅에 많이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둉여

맨 뒤에 새끼를 불에 태워 재로 꼳 새끼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울산 고을의 원은 이 바위를 가져갈 수도 없었으려니와 세금을 내라는 말도 더는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가 한자(漢字)로 ‘묶을 속(束)’자와 ‘풀 초(草)’자로 적는 속초(束草)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것은 모두 속초(束草)라는 한자(漢字) 지명의 뜻에 입각하여 풀을 묶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편자들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모두 전설적인 얘기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1967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속초(束草)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東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에도 속초리(束草里)가 있는데, 앞에 인용한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속초리(束草里)는 속새울, 속새골이라고도 했는데, 속새가 많은 데서 유래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평창군(平昌郡) 도암면(道岩面) 병내리(屏內里)에도 속새골 일명 속상동(束上洞)이 있는데, 『한국지명총람』에 「속새 풀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추정하여 볼 때, 속초(束草)는 속새라는 풀을 한자(漢字)로 기록한데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6년 이 영택(李泳澤)이 지은 『한국(韓國)의 지명(地名)』 음운(音韻) 지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속사(束沙)： 속신(木賊), 속새(銼草, 어육새)를 이두(吏讀)로 속사(束沙)라 표기한다. 황무지, 원야(原野) 등에 나는 속새과(木賊科) 식물을 말하는데, 사근(沙斤)이나 원야(原野)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속새 지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속사곶리(束沙串里)： 김포군(金浦郡) 금단면(黔丹面) 왕길리(旺吉里)

속사리(束莎里)： 진양군(晋陽郡) 금산면(琴山面)

속사동(東沙洞)： 김화군(金化郡) 원북면(遠北面) 당현리(堂峴里), 회양군(淮陽郡) 상북면(上北面) 신명리(新明里), 회양군(淮陽郡) 내금강면(內金剛面) 병이무지리(竝伊武只里), 곡산군(谷山郡) 이녕면(伊寧面) 추전리(楸田里), 고원군(高原郡) 운곡면(雲谷面) 운흥리(雲興里)

동속사동리(東東沙洞里)： 회양군(淮陽郡) 내금강면(內金剛面)

속사참(東沙站)： 영원군(寧遠郡) 대홍면(大興面) 사창리(社倉里), 강계군(江界郡) 입관면(立館面) 운송동(雲松洞)

속사리(東沙里)： 평창군(平昌郡) 용평면(龍平面), 문천군(文川郡) 운림면(雲林面) 마한리(馬汗里), 장진군(長津郡) 상남면(上南面), 장진군(長津郡) 동문면(東門面), 삼수군(三水郡) 금수면(襟水面)」

이것을 보면 속새라는 풀이 많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 적지 않은 수효인 것을 알 수 있고, 속초(束草)도 속새가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束草)라는 지명만 남고 속새는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도 나이 많은 토박이들은 속초(束草)를 속새라고 불렀음을 기억하고 있다.

2. 시내 중심부



2. 시내 중심부

과거 속초리(束草里)에 속했던 지역이다. 속초(束草)도 조선시대(朝鮮)에는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들어와서 청초호(青草湖)를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 인접한 속초리(束草里)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1937년에는 면(面) 사무소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면(面)의 명칭도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속초(束草)는 동리 이름이면서 동시에 면(面) 이름으로 변하였고, 그후 1942년 읍(邑)을 거쳐,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었다.

그동안 인구 증가로 속초리(束草里)는 1942년에는 1구에서 4구 까지로 나뉘었고, 해방 후에는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더욱 늘어 3구에서 5구, 4구에서 6구가 분리되었다. 그러던 것이 시(市) 승격 후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1구는 영랑동(永郎洞), 2구는 동명동(東明洞), 3구는 중앙동(中央洞), 4구는 금호동(琴湖洞), 5구는 청호동(青湖洞), 6구는 청학동(青鶴洞)과 교동(校洞)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논뫼호→청초호(青草湖)

속새→1. 속초(束草)의 연혁(沿革), (4) ‘속초(束草)’지명의 유래 참조.

속진(束津)→1. 속초(束草)의 연혁(沿革), (3) 일제시대(日帝時代) 이후의 속초(束草) 참조.

쌍성호(雙成湖)→청초호(青草湖)

영랑호(永郎湖): 속초시(束草市)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渴湖: 砂嘴, 砂洲 등에 의하여 바다의 일부가 바깥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주위가 약 8km이고 영랑동(永郎洞), 동명동(東明洞), 금호동(琴湖洞), 장사동(章沙洞)으로 둘러싸여 있다. 1977년부터 동방원양주식회사(東邦遠洋株式會社)에 의하여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花郎)인 영랑(永郎)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永郎湖)라고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1982년 속초시(束草市)에서 발행한 『설악(雪嶽)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영랑호(永郎湖)의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은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花郎)이었던 영랑(永郎)이 동료인 술랑(述郎), 안상(安祥), 남석(南石) 등과 금강산(金剛山)에서 수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에서 3일 동안 놀고 난 후 각각 헤어져 신라(新羅) 서울 금성(金城)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영랑(永郎) 만은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즐기고, 고기를 낚고, 풍류의 멋을 다하였다. 그런 후 사람들이 영랑호(永郎湖)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근거있는 얘기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과 권(卷) 제47 열전(列傳) 김 흠운(金 欽運) 전에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도(花郎徒)들의 수행 방법으로 「산수를 찾아 다니며 유람하는데, 먼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遊娛山水無遠不至)」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전국 산천을 순례하며 심신을 단련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기록된 화랑도(花郎徒)에 관한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금강산(金剛山)과 동해안이 그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재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몇 안되는 화랑(花郎) 중 영랑(永郎)이라는 화랑(花郎)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3 백률사(栢栗寺)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서는 안상(安常)을 준 영랑(俊永郎)의 낭도(郎徒)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영랑(永郎)의 낭도(郎徒)에는 오직 진재(眞才), 번완(繁完) 만이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그 역시 내력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世謂安常爲俊永郎徒不之審也永郎徒唯眞才繁完等知名皆亦不測人

也)」 물론 여기의 영랑(永郎)이 영랑호(永郎湖)에서 풍류를 즐겼다는 영랑(永郎)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영랑호(永郎湖)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유기(東遊記)》이다. 고려(高麗) 충정왕(忠定王) 1년 (1349년)에 쓰여진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에는 영랑호(永郎湖)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오래전, 적어도 고려시대(高麗時代), 아마도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영랑호(永郎湖)로 불리어졌고, 그것은 분명히 신라(新羅) 화랑(花郎) 영랑(永郎)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영랑호(永郎湖)는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花郎)들이 풍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옛부터 많은 문인들이 시문을 남겼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관동별곡(關東別曲)〉이란 경기체가(景畿體歌)로 유명한 고려(高麗) 후기 안축(安軸)의 시 2수가 전한다.

「저문 구름 반쯤 걷히니 산은 그림같고
가을비 새로 개이니 물결이 절로 이네
이곳에 다시 읊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배위에서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暮雲半捲山如畫
秋雨新晴水自波
此地重來難可必
更聞船上一聲歌)

「평평한 호수 거울인양 맑은데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 두니
둥실둥실 떠서 날으는 갈매기 따라가네
호연(浩然)하게 맑은 홍 발동하니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데로 들어가네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옥동(玉洞)은 경주(瓊洲)를 감추었네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이니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연잎은 맑아서 셋은 것 같고
순채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풍연(風煙, 멀리 보이는 공중에 서린 흐릿한 기운)이 천고(千
古, 썩 먼 옛적)의 수심일께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平湖鏡面澄

滄波凝不流

蘭舟縱所如

泛泛隨輕鷗

浩然發清興

泝洄入深幽

丹崖抱着石

玉洞藏瓊洲

循山泊松下

空翠涼生秋

荷葉淨如洗

蓴絲滑且柔

向晚欲回棹

風煙千古愁

古仙若可作

於此從之遊)

같은 시기인 고려(高麗) 후기의 문인 이곡(李穀)의 시 1수도
전한다.

] 「안정승(安軸)의 정회(情懷)는 황학(黃鶴)의 달이요(옛 사람의 시에 ‘黃鶴去不復返’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安軸이 한번 가고 다시 못 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생(李穀)의 행지(行止, 行動舉止의 준말로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뜻함)는 흰 갈매기의 물결이네

이곳에 다시 온다 약속하기 어려운데

부질없이 관동(關東)의 한 곡조 노래만 듣네.」

(安相情懷黃鶴月

李生行止白鷗波

重來此地誠難必

空聽關東一曲歌)

조선시대(朝鮮時代)에도 구 사맹(具思孟), 이 상질(李尙質), 이 세구(李世龜), 김 창흡(金昌翕), 이 몽규(李夢奎) 등 많은 문인들의 시가 남아 있고,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 별곡(關東別曲)〉에도 등장한다.

진성호(震成湖)→청초호(青草湖)

청초호(青草湖): 중앙동(中央洞), 금호동(琴湖洞), 청학동(青鶴洞), 교동(校洞), 조양동(朝陽洞), 청호동(青湖洞)으로 둘러싸인 속초시(束草市) 중앙에 위치한 석호(渦湖). 속초(束草) 시가지는 이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속초(束草)와 청초호(青草湖)의 이름에 공통으로 ‘초(草)’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두 지명은 서로 관계가 있는 듯하며, 현재의 금호동(琴湖洞), 청학동(青鶴洞), 청호동(青湖洞)의 이름은 이 호수의 이름과 관련하여 지어진 것이 틀림없다.

동쪽이 바다와 트여 호수 북쪽이 속초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제시대 말기에 청초호(青草湖)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속초(束草)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호수가 크게 오염되어 차라리 매립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

으나 이 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 대신 청초호(青草湖)가 관동8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쌍성호(雙成湖)：부(府) 북쪽 40리 간성군(杆城郡)과의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永郎湖)보다 훌륭하고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雙成湖：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쌍성호(雙成湖)는 청초호(青草湖)의 다른 이름이다. 민간 축기록인 『택리지(擇里志)』,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청초호(青草湖)로 기록되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읍지(邑誌)』 등 관청 축기록에는 모두 쌍성호(雙成湖)로 기록되었음이 주목된다. 청초호(青草湖)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진성호(震成湖), 논뫼호가 있다. 논뫼는 논산리(論山里)의 순수 우리말 이름이고, 논뫼호는 논뫼라는 마을의 앞에 있는 호수라는 뜻이다.

또한 조선시대(朝鮮時代) 『읍지(邑誌)』에는 용경(龍耕)이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青草湖)가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마치 논두렁 같이 되는데, 호수 밑에 사는 용이 갈아 놓은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용경(龍耕), 또는 용갈이라고 하였다. 이 고장에는 영랑호(永郎湖)에는 암룡, 청초호(青草湖)에는 숫용이 산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홍년이 든다고 하여, 이것으로 다음 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1) 영랑동(永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束草里) 1구를 영랑

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永郎洞)으로 명명하였다.

삽짜개: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남쪽으로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 마을과 인접함. 뱃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짝, 마쪽을 마짝이라고도 하고, 새짝마을, 마짝마을의 의미로 삽짜개, 마짜개로 부름.

새짝→삽짜개

새쪽→삽짜개

영랑교(永郎橋): 영랑호(永郎湖)의 바다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永郎洞)과 장사동(章沙洞)을 연결하는 다리.

영랑시장(永郎市場): 영랑동(永郎洞)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조그마한 시장이나, 이전에 속초(束草)의 중심지가 영랑동(永郎洞), 동명동(東明洞)이었을 때는 제일 크고, 제일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束草)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永郎洞)이 속초리(束草里) 1구였으므로 1구시장이라고도 했었음.

일구시장→영랑시장(永郎市場)

제일시장→영랑시장(永郎市場)

(2) 동명동(東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함.

관음암(觀音岩): 속초(束草)의료원 뒷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큰 바위. 바위에 관음(觀音)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음. 옛부터 이곳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출현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1952년 6월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이 형근(李亨根)장군과 최홍희(崔弘熙)

장군에 의해 글자가 새겨짐.

낚시바위: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 殉國同志 忠魂塔)

바로 뒤(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태공들이 많이 몰려 들어 낚시를 했으므로 낚시바위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고 있음.

마짜개: 등대가 있는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 남쪽 마을. (1) 영랑동(永郎洞) 삽짜개 참조

마쪽→마짜개

마쪽→마짜개

보광사(普光寺):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절.

1937년 정화담(鄭華潭)스님이 세움. 절 이름을 보광사(普光寺)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제자 53불(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중수하였으며,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창건(普光寺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불당곡(佛堂谷)→불당골

불당골: 보광사(普光寺) 옆(동쪽)골짜기. 현재는 활터가 들어서 있으나, 예전에는 절이 있었다.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불당곡(佛堂谷)이라고도 했음.

비선대(秘仙臺)→영금정(靈琴亭)

성황봉(城隍峰): 현재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 지금은 약간 서쪽으로 옮겨졌으나 예전에는 등대 자리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고, 그것에 연유하여 성황봉(城隍峰)이라고 불렸음.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수복탑(收復塔)

수복탑(收復塔): 원명은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이다. 이 탑은 1954년 3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 근식(金根植),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朴相善), 후방 반공 계몽인 박 성주(朴成柱) 등이 피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1군단 민사처 보좌관 전 형윤(全亨胤) 소령에게 간청을 하여, 1군단

장 이 형근(李亨根) 장군의 승낙을 얻어 피난민의 회사금, 속초읍(束草邑)부담 6백만환, 군부대의 차량지원으로 1954. 5. 10 건립하였다.

탑의 설계는 이 형찬(李亨贊),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 조각은 박 칠성(朴七星)이 하였으며,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이란 비문은 전 형윤(全亨胤) 소령이 썼다. 그리고 탑에 장 호강(張虎崗) 시인의 모자상부(母子像賦)라는 글을 새겨 놓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3. 4. 27 새벽 동해안을 휩쓴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수복탑(收復塔)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하여 83년 5월초 범시민적인 수복기념탑 복원 건립 위원회(收復紀念塔復元建立委員會, 위원장: 金鍾祿)가 발족하여 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으로 원래 이 모자상(母子像)을 조각했던 박 칠성(朴七星)에게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과 모자상(母子像) 등 전체를 복원, 재현하게 하여, 그해(1983년) 11월 17일 상오 현장에서 역사적인 제막식(除幕式)을 가졌다.

복원된 이 탑은 좌대폭(座台幅) 4m, 탑신높이(塔身高) 7m, 모자동상높이(母子銅像高) 2.55m, 총탑높이(總塔高) 9.55m로 원형보다 2m가량 높다.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이란 휘호는 당시 전 형윤(全亨胤) 소령의 글씨를 그대로 오석(烏石)에 새겨 조각했다. 또한 탑신(塔身) 좌대(座台)에 대형 ‘군·경·민 입체 북진상(軍·警·民立體北進像)’을 동(銅)으로 조각하고, 뒷면 탑신(塔身)에 동우전문대학장(東宇專門大學長) 한 상갑(韓相甲)의 ‘민족통일(民族統一)’이란 휘호가 크게 새겨져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탑신(塔身)에는 장 호강(張虎崗) 시인이 새로 지은 모자상부(母子像賦)가 새겨져 있다.

「첩첩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혐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

아치고, 어느 짓궂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 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낫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온 옛집이 쟁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 예, 모진 풍파, 욕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가냘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 걸음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롱진 향수가 담뿍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아랫말：수복탑(收復塔) 쪽이 윗말인데 대해, 등대 쪽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불렸음.

영금정(靈琴亭)：속초(東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일제시대(日帝時代)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그러나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나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

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도 하였다. 김 정호(金 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비선대(秘仙臺)로 표기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비선대(秘仙臺)는 부(府) 북쪽 50리 쌍성호(雙成湖, 오늘날의 靑草湖)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老松)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 하며, 실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건널 수 없다.(秘仙臺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峯峭拔上有虬松數株望之如畫其上可坐有徑如線通陸海惡則不得渡)」

또 다른 이름으로 화험정(火驗亭)이 있다.

오리바위: 영금정(靈琴亭) 앞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함.

우렁골: 현재 시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골짜기의 옛 이름.

웃말: 등대 쪽이 아랫말인데 대해 수복탑(收復塔) 쪽 마을을 일컬던 말

응고개: 우렁골에서 용수골로 가는 고개의 옛 이름. 현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중앙시장입구로 가는 고개.

이형근 장군 덕정비(李亨根 將軍 德政碑):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 殉國同志 忠魂塔) 옆 영랑호(永郎湖)가에 있다. 본래 이 지역은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제1군단장 이 형근(李 亨根) 장군이 수복하고, 군정을 실시하여 이지방 재건에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8만 주민들이 크게 감격하여 1952. 8. 15 제1군단 전투지구 민중대표 박 종승(朴 鍾勝) 외 13명의 발기로 비(碑)를 세워 이형근(李亨根) 장군의 업적

을 길이 기념하고 있다.

장골: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둘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시대에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 城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명 장안골이라고도 했음.

장안골→장골

중간말: 아랫말과 윗말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의 옛이름.

촌말: 우렁골과 용솟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이름. 현재 경찰서 뒷편 마을이다.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 殉國同志 忠魂塔):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가에 있다. 이 탑은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흘린 반공전사자 및 6. 25 전몰용사 중 통천군(通川郡) 출신 114명의 불멸의 충혼을 탑에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고자, 전국 통천군민(通川郡民)의 회사금으로 1969. 10. 15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해돋는 동방의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산의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흘린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비석에 깊이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이곳에 모시고, 방공(防空)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서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화험정(火驗亭)→영금정(靈琴亭)

(3) 중앙동(中央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3구를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앙동(中央洞)이라고 명명함.

삼구시장→중앙시장

야채시장: 중앙시장 위(서쪽)에 야채를 취급하던 시장이었는데,

그후 중앙시장이 넓어져서 지금은 중앙시장에 포함되어 버렸음.
그러나 야채시장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음.

용수골: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이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소골(龍沼谷)이라 부르던 것이 용수골로 변화됨.

중앙시장: 속초(東草)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東草里)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中央洞)으로 이름지어짐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림.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정류장, 미시령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곳에서 짱치기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렸음.

(4) 금호동(琴湖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東草里)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함.

금장대(金將臺): 영랑호(永郎湖)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 25사변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한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다. 김장군(金將軍)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니까, 당시에는 김장대(金將臺)라고 불렸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지도에 모두 금장대(金將臺)로 표기되고 있다.

범바위: 영랑호(永郎湖)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

간신양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당들의 가무가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연풍사(蓮豐寺): 미시령(彌矢嶺) 도로가에 있는 신흥사(新興寺)에 딸린 조그만 절.

(5) 청학동(青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青鶴洞)이라고 명명함.

육구시장→청학(青鶴)시장

청학시장(青鶴市場): 속초리(束草里)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青鶴洞)으로 바뀜에 따라 청학시장(青鶴市場)이라고 불림.

(6) 교동(校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青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됨. 보통 향교(鄉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校洞)이라고 하나, 속초(束草)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鄉校)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속초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校洞)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만천동(萬泉洞, 萬千洞): 교동(校洞) 천주교회 부근을 일컬던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음.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명과, 또는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는 설명이 있다.

쌍다리→청초교(青草橋)

청초교(青草橋): 청초천(青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

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고 부른다.

(7) 청호동(青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束草里) 5구가 되었다가, 청호동(青湖洞)으로 바뀜. 청호(青湖)라는 이름은 청초호(青草湖)에서 온 것이 틀림 없다.

청호동(青湖洞)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咸鏡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갯배나루: 중앙동(中央洞)과 청호동(青湖洞)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5구도선장이라고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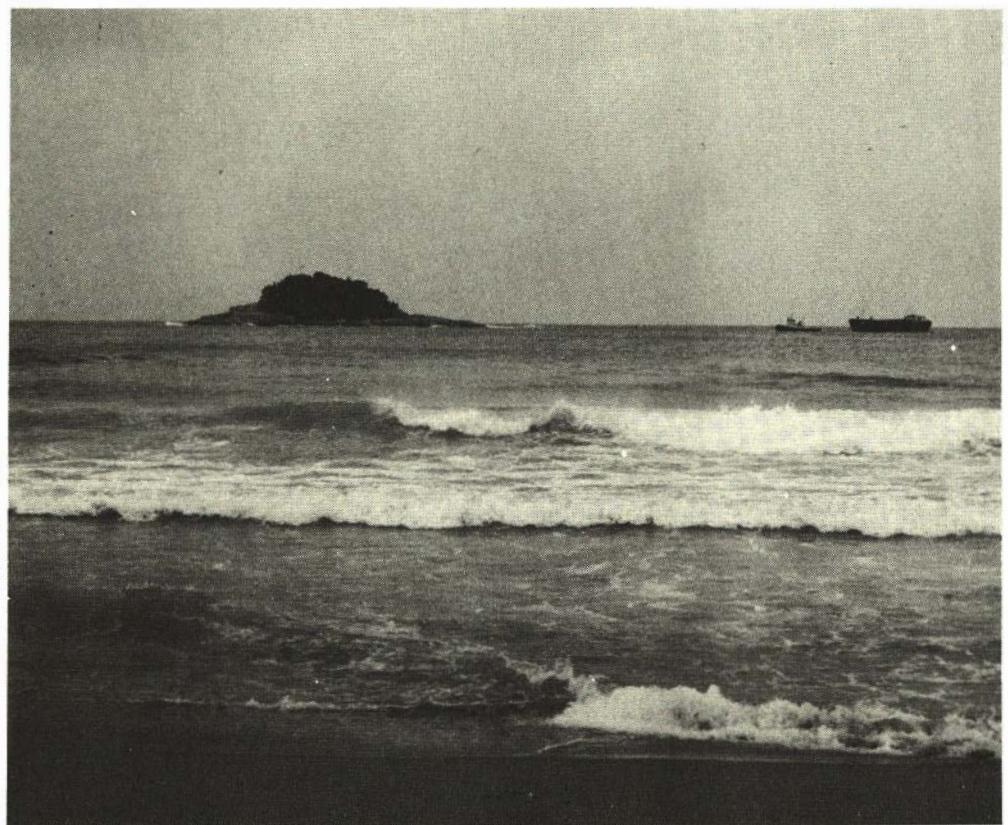
새섬→조도(鳥島)

오구도선장→갯배나루

용초도(龍草島)→조도(鳥島)

조도(鳥島): 청호동(青湖洞)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말로는 새섬이고,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조도(鳥島)이다. 이용(李龍)씨가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로 재직할 때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이름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龍草島)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서 있다.

3. 조 양 동



3. 조양동(朝陽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青垈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명명함.

조양(朝陽)이란 동명은, 소야8경(所野八景)의 하나인 논산조양(論山朝陽)에서 따온 것이다. 소야팔경(所野八景)이란 소야천(所野川)을 중심으로 한 부근 마을의 경관 중 빼어난 것 8가지를 말한다.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하여 척산(尺山), 노리(蘆里)를 거쳐 청초호(靑草湖)로 유입되는 하천을 지금은 청초천(靑草川)이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소야천(所野川)이라고 했고, 그 일대를 소야(所野)뜰, 소야(所野)평야라고 했었다. 소야8경(所野八景)은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삼연(三淵) 김 창흡(金 昌翕)이 제정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런 까닭으로 최근에 '삼연 김 창흡 선생 추념비(三淵 金 昌翕 先生追念碑)'가 소야평야(所野平野)의 한가운데인 노학동(蘆鶴洞) 사무소 앞에 세워졌고, 비석에는 소야8경(所野八景)이 새겨져 있다.

소야8경(所野八景)이란 다음의 10가지 중 8가지를 말한다.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靑草湖)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같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는 경관.

속초귀범(束草歸帆): 멀리 나갔던 듯단배가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경관. 조도귀범(鳥島歸帆)으로도 알려져 있음.

주교야화(舟橋夜火): 밤에 고기잡는 배의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경관. 주교리(舟橋里)는 부월리(扶月里)를 구성하는 마을 중의 하나다. 주교어화(舟橋漁火)로도 알려져 있음.

온정조하(溫井朝霞): 온정리(溫井里)에는 더운 우물이 있어, 거기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아침 해뜰 무렵 햇빛을 받아 벌겋게 보이는 경관.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리(論山里)에 아침 햇볕이 비치는 경관.

논산조연(論山朝煙)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게 되면 아침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라는 뜻이 된다.

청대화병(青岱畫屏): 청대산(青岱山)이 우뚝 솟은 것이, 미치 그림을 그려 놓은 병풍을 들러 친 것 같다는 경관. 청대화병(青岱花屏)으로도 알려져 있음.

노동명월(蘆洞明月): 노리(蘆里)에는 갈대밭이 넓어 흰 갈대꽃이 만발하면 주위가 밝아서, 마치 밝은 달이 비추는 것 같다는 경관.

이동백설(梨洞白雪): 이목리(梨木里)에 흰 배나무 꽃이 핀 것이, 마치 흰눈이 내린 것 같다는 경관.

도원홍우(桃源紅雨): 도리원리(桃李源里)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붉은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면, 마치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것 같다는 경관.

척산야침(尺山夜砧): 척(尺)은 옷감을 재는 자를 뜻함으로, 나아가 밤에 옷감을 다듬어질하는 경관을 뜻한다.

논뫼호→청초호(青草湖)

쌍성호(雙成湖)→청초호(青草湖)

진성호(震成湖)→청초호(青草湖)

청초호(青草湖)→2. 시내 중심부, 청초호(青草湖) 참조

(1) 부월리(扶月里)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青岱里)와 합쳐져서 조양동(朝陽洞)이 됨.

현재는 ‘도울 부(扶)’자를 써서 부월(扶月)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浮)’자를 쓴 것이 그후 ‘도울 부(扶)’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

(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강릉(江陵) 경포(鏡浦)에도 ‘호수의 달’이 있듯이, 청초호(青草湖)에도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여 부월(扶月)로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朝鮮) 영조(英祖) 36년, 1760년에 발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그후 읍지(邑誌)에서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되어 있다.

반부득: 부월리(扶月里) 앞에 있는 들. 청초호(青草湖)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두득으로 변함. 한자(漢字)로 써서 반부평(半浮坪)이라고도 함.

반부평(半浮坪)→반부득

배다리: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청초호(青草湖)를 끼고 있어 이전에는 배로 건너 다녔으므로 배다리라고 함. 한자(漢字)로 써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새마을: 부월리(扶月里)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

연깨: 부월리(扶月里) 안쪽, 현재 조양국민학교(朝陽國民學校)쪽에 있는 마을. 이전에 연못이 있어 연못개라고 하던 것이 연깨로 변화됨.

주교(舟橋)→배다리

(2) 온정리(溫井里)

전통적으로 행정상 부월리(扶月里)에 속하고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증가로 부월리(扶月里)에서 분리·독립되어 온정리(溫井里)가 되었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부월리(扶月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青岱里)와 합쳐져 조양동(朝陽洞)이 됨.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漢字)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扶月里)에 속하고 있을때 부월리(扶月里)는 바깥이고, 온정리(溫井里)는 안 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었다.

가래터: 마을 서쪽 골짜기

더운우물→온정리(溫井里)

떡발: 마을 남쪽 골짜기

산지랑골: 마을 남서쪽 골짜기. 산신령께 산신제를 지내던 산제당(山祭堂)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을 거쳐 산지랑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됨.

숫개: 마을 입구의 논.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습기(물)가 풍부하여 농사가 항상 잘되므로 습기논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수개논이 된 것 같다고 얘기하나, 그것보다는 이전에 청초호(青草湖) 물이 이곳까지 찼을 때 이곳이 갯가였으므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의 개’라는 의미로 수개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말→온정리(溫井里)

종발: 마을 남동쪽 골짜기.

(3) 논산리(論山里)

조양동(朝陽洞)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청대리(青岱里)와 합쳐져 조양동(朝陽洞)이 되었는데, 이때 조양(朝陽)이란 동명은 소야8경(所野八景) 중의 하나인 논산조양(論山朝陽)에서 따온 것이다.

논산(論山)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순수 우리말로 논뫼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논산(論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논뫼를 현지에서는 논미로 발음한다.

갯마을: 논산리(論山里) 북서쪽 청초호(青草湖) 갯가에 새로 조성된 마을.

논뫼→논산리(論山里)

논미→논산리(論山里)

떡고개→떡 밭재

떡밭재: 논산리(論山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 일명 떡고개라고도 한다. 큰 떡밭재(큰 떡고개)와 작은 떡밭재(작은 떡고개)가 있는데, 큰 떡밭재(큰 떡고개)로 넘어가면 중도문리(中道門里) 1구가 나오고, 작은 떡밭재(작은 떡고개)로 넘어가면 중도문리(中道門里) 2구가 나온다. 보통 떡밭재(떡고개)라고 하면 작은 떡밭재(떡고개)를 의미한다. 고개 옆에 밭이 있음.

떡장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범박위: 범박골에 있는 바위.

범박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부무골: 마을 남쪽 떡밭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새마을: 논산리(論山里) 서편에 새로 조성된 마을.

신재나무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랫 등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부무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아랫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웃 등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아랫 등지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윗 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떡고개→떡 밭재

작은 떡밭재→떡 밭재

작은 합지고개: 마을 안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 이전에 합정이 파여져 있었다고 함.

장자목깨: 작은 합지고개에서 바로 북쪽으로 이어진 작은 구릉.

재핀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잡힌 데서 이름이 유

래되었다고 함.

조선독골: 마을 남쪽 떡발재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고개.

큰 떡고개→큰 떡발재

큰 떡발재: 논산리(論山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 1구로 넘어 가는 고래. 일명 큰 떡고개라고도 한다.

큰 험지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이전에 짐승을 잡기 위하여 큰 험정을 파놓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4) 청대리(青岱里)

본래 전통적으로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 11. 17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증가로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青岱里)로 불리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조양동(朝陽洞)에 합쳐짐.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青岱山)이 있어서 청대산(青岱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青岱里)라고 함. 원래는 청대(青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青岱)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青岱)라고만 씀.

마을 어른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들이 어렸을 때 마을에서 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토기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골: 마을 뒤(남쪽) 할미골과 황새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가시나무가 많음.

덤박골: 마을 뒤(남쪽) 큰골과 할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두루봉: 청대산(青岱山)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가 등그스름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매자: 마을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 마을과 큰골 사이에 약 300년 정도된 단양(丹陽) 장씨(張氏) 조상묘인 큰 봉분이 있는데, 풍

수지리상 반복치형(半伏雉形)이라고 한다. 매가 꿩(雉)을 잡는 새임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과 매자라는 지명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범바위: 산지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바위 밑 굴에서 범이 새끼를 쳤다고 함.

산지당골: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됨.

연화동(蓮花洞): 마을 서쪽 할미골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지리상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고 한다.

작은골: 큰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골짜기.

장사바위: 큰골에 위치한 바위.

청대산(青岱山): 마을 남쪽 중도문리(中道門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230m.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르름으로 청대산(青岱山)이라고 한 것 같다. 부근에서는 모두 청두산이라고 발음한다.

청두산→청대산(青岱山)

큰골: 마을 뒤(남쪽) 청대산(青岱山)으로 향한 큰 골짜기. 동편은 산지당골이고 서편은 덤박골이다.

할미골: 마을 뒤(남쪽) 덤박골과 가시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황새동: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4. 대포동



4. 대포동(大浦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대포리(大浦里)에 외옹치리(外甕峙里), 내물치리(內勿鄒里)가 합쳐져 대포동(大浦洞)이 됨.

(1) 대포리(大浦里)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漢字)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또 외옹치리(外甕峙里)가 독재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밖독재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포리(大浦里)는 독재의 안쪽(육지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또는 독재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하여 큰독재라고도 하였다.

일부 기록에 원래 옹진(甕津)이라고 하던 것을, 조선(朝鮮) 성종(成宗) 21년, 1490년에 강릉(江陵) 안인포(安仁浦)에서 대포영(大浦營)이 옮겨온 후부터 대포(大浦)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한 오류이다. 대포영(大浦營)이란 해군 부대는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양양군(襄陽郡)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에 있었다. 또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옹진리(甕津里)는 오늘날의 대포(大浦)가 아니고, 외옹치리(外甕峙里)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대포(大浦)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는 상당히 큰 항구로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1937년까지 도천면(道川面) 사무소가 위치했었다.

나무남재: 대포리(大浦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 나무꾼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대포꼬댕이: 대포 고개 끝에 있는 마을.

독바위: 예전 대포 재건 학교 뒤(북서쪽)에 독처럼 생긴 큰 바위. 다른 말로 병풍바위, 화랑탑이라고도 한다.

독바위고개→독재

독바위께: 독바위가 있는 부근 일대를 가리키던 말.

독재: 대포리(大浦里)의 다른 이름인 안독재, 큰독재, 외옹치리(外甕峙里)의 다른 이름인 밧독재라는 이름을 생겨나게 한 중요한 고개이나, 현지에서 어느 고개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1967년에 나온 《한국지명총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외옹치(外甕峙)의 유래를 설명할 때, 산이 독처럼 생긴 데서 연유하였다고도 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독재를 다른 말로 독바위고개라고도 하였는데, 부근에서 독바위라고는 예전 재건학교 뒤(북서쪽)에 있는 독바위 밖에 없으니 독바위 고개, 즉 독재는 틀림없이 이 독바위 부근에 있는 고개길을 말한 것이다. 추측컨데 예전에는 이 고개길이 부근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으나, 근대화됨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이 고개길은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고, 대신 새로 동쪽 해안 쪽으로 뚫린 신작로가 주로 이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독재, 독바위고개라는 이름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마산째: 대포(大浦) 북쪽에 솟아 있는 산. 말처럼 생겼으며 산 위에는 옛 성터가 있음. 일명 마성대(馬城臺)라고도 한다.

마성대(馬城臺)→마산째

방축(防築):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저수지.

병풍바위:→독바위

산두꾸미: 대포(大浦)에서 남쪽 물치(勿淄) 쪽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마을. 도깨비가 출현했다고 하여 산도깨비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발뒤꿈치에서 사용되는 ‘뒤꿈’이 산과 결합하여 산뒤꿈이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쇠팽이골: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요즘 이것을 잘못 말해 회평골이라고도 한다.

숫돌바위: 대포(大浦) 동쪽 축항 너머에 있는 바위. 수돌처럼 생겼음.

아랫말: 대포(大浦) 나룻가에 있는 마을.

안독재→대포리(大浦里)

웃말: 대포국민학교(大浦國民學校) 쪽에 있는 마을

잔다리골: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제집골: 대포고개 밑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많아 사투리로 지와집골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로 변함.

진등: 청룡(青龍) 서북쪽에 있는 긴 산등성이.

청룡(青龍): 대포(大浦)의 청룡(青龍)이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

큰골: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요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큰골이 회평골, 즉 쇠팽이골로 잘못 알려지고 있음.

큰독재→대포리(大浦里)

큰말기: 대포(大浦) 서쪽 철길 너머에 있는 들.

화랑탑(花郎塔)→독바위

회평골→쇠팽이골

(2) 외옹치리(外甕峙里)

독재의 바깥쪽이므로 바깥독재, 또는 줄어서 뱃독재라고 불리어졌고,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 등을 보면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행정상 명칭은 옹진리(甕津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외옹치리(外甕峙里)로 바뀌었고,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대포동(大浦洞)에 포함되었다.

굴바위: 마짜말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인데, 굴이 있어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전을 하기도 했으므로 투전굴이라고도 함.

기른네미: 외옹치(外甕峙) 새마을 쪽에서 대포(大浦) 고개로 빠

지는 길목 일대를 가리키는 말

다리슴：마赜말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 돌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섬이란 뜻으로 다리섬이라고 하던 것이 다리슴으로 변화함.

덕대바위：외옹치(外甕峙)에서 대포(大浦)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 바위가 덕이 있게 생겼다고 한다.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덕대암(德大岩)이라고도 함.

덕대암(德大岩)→덕대바위

덕산(德山)→봉수터

마당바위：봉끝 밑(동쪽) 해변가에 있는 바위. 마당처럼 편평함.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장암(場岩)이라고도 한다.

마赜말：새싹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향한 마을. 마赜은 마쪽이 변한 것인데, 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뜻한다. 현재는 풍랑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북쪽 새마을로 집단 이주 했음.

봉끝→봉수터

봉수터：조선시대(朝鮮時代) 덕산 봉수(德山 烽燧)가 있었던 터. 덕산 봉수(德山 烽燧)는 남쪽으로 양양(襄陽) 수산 봉수(水山 烽燧), 북쪽으로 간성(杆城) 죽도 봉수(竹島 烽燧)와 연결되었다. 현지 사람들은 봉수터 보다는 보통 봉화터라고 부른다. 또는 설악산(雪嶽山)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達磨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青岱山)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고 하여 봉끝이라고도 한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으나, 곧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봉화터→봉수터

새마을：마赜말이 풍랑으로 폐허가 되자 주민들이 새쪽말 북쪽에 집단 이주하여 새로 건설된 마을.

새赜말：마赜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동쪽을 향해 조성된 마을. 새赜은 새쪽이 변한 것인데, 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을 뜻한다.

약수터: 외옹치(外甕峙)에서 대포(大浦)로 가는 해변길 중간에 있음.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 나온다.

오리바위: 외옹치(外甕峙)에서 대포(大浦)쪽으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앓는다고 함.

일곱매끼: 조양동(朝陽洞)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를 일컫는 말.

장승거리: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일대.

장암(場岩)→마당바위

지네바위: 다리ступ과 굴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지네처럼 생겼음.

투전굴→굴바위

해구(海狗)바위: 마당바위 북쪽 해변가에 있는 바위. 해구(海狗, 물개)들이 자주 와서 앓았음.

(3) 내물치리(內勿淄里)

속초시(束草市) 대포동(大浦洞) 내물치리(內勿淄里) 뿐만 아니라, 쌍천(雙川)을 사이에 두고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에도 물치리(沕淄里)가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 등을 살펴보면 ‘치(淄)’자가 본래는 ‘치(淄)’자 옆음을 알 수 있고, 행정상 속초(束草) 물치(勿淄)는 물치리(勿淄里), 양양(襄陽) 물치(沕淄)는 물치진리(勿淄津里)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속초(束草) 물치(勿淄)는 내물치리(內勿淄里), 양양(襄陽) 물치(沕淄)는 ‘물(勿)’자가 ‘물(沕)’자로 바뀐 물치리(沕淄里)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내물치리(內勿淄里)는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대포동(大浦洞)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모두 우암(尤庵) 송 시열(宋時烈) 선생과 관련이 있다. 대충 이런 얘기다. 우암(尤庵) 선생이, 유배지가 함경도(咸鏡道) 덕원(德源)에서 경상도(慶尙道) 장기(長鬚)로 옮겨져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정립(鄭笠)이란 농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내린 폭우로 물에 불어 길을 떠날 수 없었으므로 며칠을 더 머물고 떠났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물에 잠긴 마을이라고 하여 이 마을을 물치(勿淄)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물(勿)’자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고, ‘치(淄)’자는 마을이란 뜻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때 우암(尤庵) 선생이 물치(勿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떠났다고 한다.

우암(尤庵) 선생이 이곳을 지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물이 불어 며칠을 더 묵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勿)’자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고, 치(淄)자는 마을을 뜻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치(淄)’자가 마을을 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본래 ‘치(淄)’자가 ‘검을 치’이니 물이 검으로 이두식 표기로 물치(勿淄)라고 한 것 같고, 물치(勿淄)라는 이두식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혹시 어쩌면 물에 잠긴 마을이란 뜻이 아니고, 물이 검다는 뜻으로 물치(勿淄)라는 이름을 우암(尤庵) 선생이 지어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암(尤庵) 선생과 관련하여 물치주시(勿淄柱詩)라는 유명한 시가 전해온다. 우암(尤庵) 선생이 유숙한 집 기둥에 붙어있는 식귀를 보니, 글귀가 뒤바꿔져 있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작년 5월 5일 지나가던 과객이 이 시를 써서 네 기둥에 한 구절씩 붙이면서 하는 말이, 명년 5월 5일 어떤 나그네가 이곳에 와서 이 글을 읽어 볼 것이라고 하며 떠나갔다’는 것이다. 이 식귀를 붙인 네 기둥이 물치주(勿淄柱)이고, 그 시를 물치주시(勿淄柱詩)라고 하는데, 네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삼전시호 인개신(三傳市虎 人皆信):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을 세번 전해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모두 믿는다. 즉 거짓말

도 여러번 그럴듯하게 교묘히 꾸며서 하면 누구나 속게 마련이니 허황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일철군봉 부역의(一掇裙蜂 父亦疑): 계모가 계획적으로 속옷에다 별을 넣고 소리지르자, 아들이 별떼를 쫓고자 계모의 속옷을 터니,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한다. 이 구절 역시 세상 만물을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치세에 혼혹됨이 없이 살라는 교훈이다.

세상공명 간목안(世上功名 看木雁): 나무기러기를 만드는 데는, 바르고 곧은 나무보다 구부러진 나무가 소용되는 것처럼, 나라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못난 인재도 필요해 세상에 공명을 날릴 수 있다.

좌중담소 신상구(座中談笑 慎桑龜): 거북이가 자기를 삶아 죽이기 위해서는 뽕나무로 불을 때야 된다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죽었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좌중담소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암(尤庵) 선생이 쓸데없이 공명을 탐내어 당파싸움에 휘말려들지 않고, 상복문제로 활가활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글인듯 하다.

가래고지바위: 둥글바위와 섬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다에 사는 오리 종류인 가래고지가 잘 와서 앉는다고 함.

개바위: 마당바위와 둥글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이전에 이 바위에서 개를 잡아먹었다고 함. 또는 바위 밑에 게가 많다고 하여 게바위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게바위→개바위

군개: 마을 남쪽으로 쌍천(雙川) 못미쳐 있는 작은 시내. 쓸데없는, 군더더기 개(시내)라는 뜻으로 군개라는 이름이 붙여짐.

귀신바위: 마을 북쪽 대포(大浦)와의 경계 지대에 있는 바위. 예전에 귀신이 나왔었다고 함.

둥글바위: 개바위와 가래고지바위 사이에 있는 둥글고 큰 바위.

마당바위: 귀신바위와 개바위 사이에 있는 마당처럼 넓고 편평한 바위. 해구(海狗, 물개)가 더러 와서 잠을 잤다고 함.

선바위→섬바위

섬바위: 가래고지바위 남쪽에 섬처럼 우뚝 솟은 바위. 큰섬바위라고도 하며, 또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선바위라고도 한다.

쌍천(雙川): 설악산(雪嶽山)에서 빌원하여, 도문동(道門洞)을 거쳐, 물치(勿淄)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으로, 속초시(東草市)와 양양군(襄陽郡)의 경계를 이룬다. 하류 물치(勿淄) 부근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져 흐르기 때문에 쌍천(雙川)이라고 한 것 같다.

쌍천교(雙川橋): 쌍천(雙川) 하류에 놓여 속초(東草) 대포동(大浦洞) 내 물치리(內勿淄里)와 양양(襄陽) 강현면(降峴面) 물치리(沕淄里)를 연결하는 다리.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안가산: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

옹구점마을: 옹기(甕器)를 굽던 마을로, 현재 관광안내소 옆 군부대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俞勿齋碑): 원명은 물재 유선생 유허비(勿齋 兪先生 遺墟碑)이다. 조선(朝鮮) 후기에 이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勿齋) 유 회일(俞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비문은 예조판서(禮曹判書)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使)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원래는 새로 조성된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으나, 얼마전에 마을이 새로 조성될 때, 현재 자리인 일출봉(日出峰) 뒤 철길 옆으로 옮겨졌다.

물재(勿齋) 선생은 학자이자, 효자로 이름이 높아, 그의 사후 선생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건립되었으나, 그후 사당이 퇴락되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운 유허비(遺墟

碑)가 바로 이 비석이다.

선생이 호를 물재(勿齋)라고 한 것은, 우암(尤庵) 송 시열(宋時烈) 선생이 이 마을에 머문 것과 관련하여 지어진 것이다. 물(勿)은 물치(勿緼) 마을이고, 재(齋)는 우암(尤庵)선생이 머문 집을 뜻하니, 우암(尤庵)선생을 사모하여 그를 사표로 본받겠다는 취지에서 물재(勿齋)라고 하였다.

조짐이: 등글바위 앞(동쪽)에 있는 바위.

큰다리→쌍천교(雙川橋)

큰섬바위→섬바위

흙다리: 쌍천교(雙川橋)에서 약간 서쪽에 놓여졌던 다리. 지금은 없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져 위에 흙을 덮었으므로 흙다리라고 했다.

5. 도문 옮기기



5. 도문동(道門洞)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도문면(道門面)이라고 하여, 그 관할 하에 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 물치리(勿縕里), 대포리(大浦里), 웅진리(褒津里)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문(道門)은 동리 이름이자, 동시에 면(面)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들어와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서, 오늘날 속초시(東草市)의 전신인 도천면(道川面)이 되었고, 동시에 상도문리(上道門里)와 하도문리(下道門里) 중간에 행정상 중도문리(中道門里)가 신설되었다. 그후 1963년 속초(東草)가 시(市)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가 합쳐져서 도문동(道門洞)이 되었다.

도문(道門)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있다. 신라(新羅) 때 원효(元曉)대사와 의상(義湘)대사가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강선리(降仙里)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雪嶽山)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금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無常無我)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法杖)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하여 도문(道門)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강선리(降仙里)에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雪嶽山)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臥仙臺)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飛仙臺)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이곳을 도문(道間)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雪嶽山)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도문(道門)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도문뜰→도문평(道門坪)

도문평(道門坪):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에 걸쳐 있는 넓은 들. 도문뜰 또는 도문평야(道門平野)라고도 한다.

도문평야(道門平野)→**도문평(道門坪)**

쌍천(雙川)→4. 대포동(大浦洞), (3) 내물치리(內勿淄里) 참조

(1) 상도문리(上道門里)

거망동(舉網洞)→그망골

그망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상도문리(上道門里)는 행주형(行舟形)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그물을 드는 형국이므로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거망동(舉網洞)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그망골이 됨.

대사동(大寺洞)→절골

벼락바위: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 옹구점말 입구 쌍천(雙川) 가에 있는 바위. 크게 갈라져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사리(沙俚)재→싸리재

살인고개→싸리재

소태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상도문리(上道門里)는 행주형(行舟形)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배의 둑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둑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수개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싸리재: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 옹구점말과 노학동(蘆鶴洞)을 연결하는 고개. 싸리나무가 많아서 싸리재라고 한다고도 설명하나 싸리나무가 특별히 많지 않으므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사리(沙俚)재라고 하던 것이 싸리재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고개에서 살인사건이 있고 난 후 부터는 살인재, 살인고개라고도 불렸다고 설명하나 그것보다는 살인재 역시

사리(沙俚)재와 같은 어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沙俚), 살인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옹구점말: 상도문리(上道門里) 동쪽에 옹기점(甕器店)이 있었던 마을. 행정상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로 되어 있었음. 일명 토기점(土器店) 또는 점말이라고도 함.

육모정: 마을 앞(남쪽) 소나무 숲에 있는 육각으로 된 정자. 원명은 학무정(鶴舞亭). 한말(韓末) 일제시대(日帝時代) 이 마을 출신의 학자 매곡처사(梅谷處士) 오 윤환(吳潤煥)이 세웠다.

작은 절골: 큰 절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절골: 마을 뒤(북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본래의 골짜기를 큰 절골,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대사동(大寺洞)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왼편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작은 절골이라고 한다.

점말→**옹구점말**

주봉산(朱鳳山):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338m. 산의 모양이 봉황(鳳凰)의 형국이라고 한다. 지도에는 주봉산(朱鳳山)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주위에서는 모두 주왕재라고 말한다.

주왕재→**주봉산(朱鳳山)**

큰절골→**절골**

토기점(土器店)→**옹구점말**

학무정(鶴舞亭)→**육모정**

(2) 중도문리(中道門里)

골말: 中道門里 1구의 다른 이름으로 골짜기 마을이란 뜻이다.

나무남재: 중도문(中道門)에서 대포(大浦)로 넘어가는 고개. 나무꾼들이 쉬어갔다고 한다.

대랑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떡발재: 중도문리(中道門里)와 논산리(論山里)를 연결하는 고개.

조양동(朝陽洞) 논산리(論山里) 편을 참조할 것.

무승골: 골말에서 뒤(북쪽)로 더 들어간 골짜기. 다른 말로 산지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산신령께 산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란 뜻의 산제당이 변화한 것이 틀림없다.

벌말: 중도문리(中道門里) 2구의 다른 이름으로 벌판 마을이란 뜻이다.

사당골: 마을 북서쪽, 무승골 서편 골짜기.

산지당→**무승골**

삼박골: 사당골 서편 골짜기.

신문덕: 중도문(中道門)과 하도문(下道門)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둔덕.

아랫말: 중도문리(中道門里) 2구의 다른 이름으로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윗말: 중도문리(中道門里) 1구의 다른 이름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자매시 기념공원: 미국 오리건(Oregon)주 그레셤(Gresham)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 하도문(下道門)과의 경계지대에 있다.

청룡암(青龍庵): 청대산(青岱山) 밑(남쪽)에 있는 절.

충혼탑(忠魂塔): 속초시(東草市) 출신의 전몰(戰歿) 군경(軍警)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 본래 1964년 5월 동명동(東明洞)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영랑호(永郎湖) 남동쪽 가 현재 체육공원 자리로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 세움. 자매시기념공원 옆(서쪽)에 있다.

(3) 하도문리(下道門里)

건너말: 하도문(下道門) 입구에 있는 마을. 양짓말에서 보면 마을 중간에 있는 작은 개울 건너편(남쪽) 마을이 된다.

고양터: 마을 서북쪽 골짜기. 과거에 고(高)씨와 양(梁)씨가 살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골논：마을 뒤(북쪽) 고양터 동편 골짜기.

괴골：마을 뒤(북쪽) 골논 동편 골짜기.

도깝소：쌍천(雙川)가에 있는 소(沼). 도깨비가 자주 출현했다고
하여 도깝소라고 하던 것이 도깥소로 변화됨.

방축골：마을 뒤(북쪽) 괴골 동편 골짜기.

선녀골：마을 동북쪽 골짜기.

송정리(松亭里)：하도문(下道門)을 다르게 부르던 이름.

신문덕：하도문(下道門)과 중도문(中道門) 사이에 있는 작은 둔
덕.

양짓말：산기슭 밀 양지쪽에 있는 마을.

6. 설악동



6. 설악동(雪嶽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장항리(獐項里)를 설악동(雪嶽洞)으로 개칭하였고, 1983. 2. 15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상복2리(上福二里)를 포함하게 되었다.

종래의 이름 장항리(獐項里)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한자(漢字)로 표기한 장항(獐項)에서 온 것으로, 이전에는 노루목을 중심으로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 일대인 탑(塔)벌, 비룡교(飛龍橋) 건너편 소토왕골 입구인 토왕성(土旺城), 정고평(丁庫坪) 등지에 민가가 있어서 장항리(獐項里)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은 그 모습이 많이 변하였다.

(1) 설악(雪嶽) 관광 단지 일대

구단지: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

군량암(軍糧岩): 군량장(軍糧場)에 있는 큰 바위. 바위 모양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량장(軍糧場): 정고평(丁庫坪)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벌판.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軍糧場)이라고 새겨져 있음. 예전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하던 곳이다.

권금성(權金城):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로, 지금은 그 돌산 일대를 권금성(權金城)이라고 부른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권금성(權金城): 설악산(雪嶽山)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1,112척(尺)이고 높이는 4척(尺)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예전에 권(權)씨, 김

(金)씨 두 집이 여기로 피난한 까닭으로 인하여, 권금성(權金城)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낙산사(洛山寺) 기록에, ‘몽고(蒙古)가 우리 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雪嶽山)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權金城在雪嶽頂石築周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闖入我疆是州於雪嶽山築城守禦疑即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추정이 맞는다면, 이 성은 늦어도 고려시대(高麗時代) 몽고(蒙古) 침입 이전에는 축조된 성이다. 실제로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 몽고(蒙古)는 동해안까지 쳐들어와, 고종(高宗) 40년(1253년) 10월 오늘날의 양양(襄陽) 인 양주(襄州)를 함락시킨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낙산사(洛山寺) 기록대로 이 고장에서는 설악산(雪嶽山)에 있는 산성에 응거하여 항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성은 바로 이 권금성(權金城)일 가능성성이 많다. 혹은 고종(高宗) 40년(1253년)에 양양읍성(襄陽邑城)이 함락되자, 계속되는 몽고(蒙古)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설악산(雪嶽山)에 권금성(權金城)을 새로 축조하였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이니까,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성(城)일 가능성이 높고, 협준한 암벽에 의지하여 쌓은 산성이므로 유사시에 피난처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 영호(鄭永鎬) 교수는 권금성(權金城)은 군사적인 성이 아니라, 사찰 방어 형태의 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권금성(權金城)의 유일한 통로가 칠성봉(七星峰) 쪽(남쪽)으로 되어 있어 칠성봉(七星峰) 동남쪽 진전사(陳田寺)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권금성(權金城)에서 출토되는 기와류의 형태와 연대가 진전사지(陳田寺址)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노루목: 노루목고개 일대(동쪽), 즉 현재의 B지구 일대를 가리키

던 지명. 노루목이, 또는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장항(獐項)이라고도 불렸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雪嶽洞)의 옛이름인 장항리(獐項里)의 중심 마을이었다.

노루목고개: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파크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 이 고개에서 장항리(獐項里)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종전까지는 노루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지형이 마치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또는 신라(新羅) 때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설악산(雪嶽山)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길을 잊고 혜매는데, 문득 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고개와 몸짓으로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노루목고개라는 지명은 전국에 무수히 널려 있고, 속초(東草)에만도 장천리(章川里)에 또 다른 노루목고개가 있다. 이것은 노루라는 짐승과는 관계가 없고,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고개를 순수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漢字)로 장항(獐項)이라고도 표기하는 것이다.

노루목이→노루목

도문교(道門橋): 쌍천(雙川)에 놓여 설악동(雪嶽洞) 주택 단지와 도문동(道門洞)을 연결하는 다리.

망바위: 정고평(丁庫坪), 무명 용사의 비(無名 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있는 네모난 큰 바위.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펴,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한다.

모기재→목우(牧牛)재

목우(牧牛)재: 설악동(雪嶽洞)과 노학동(蘆鶴洞)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 지금까지 이름 유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일대인 소야평야(所野平野)의 토지가 대부분 신흥사(神興寺) 소유

였을 때, 가을 추수 뒤에 농민들이 생산된 양곡을 싣고 신흥사(神興寺)로 가기 위해 이 고개를 넘다가, 우마에게 풀을 뜯게하며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우마에게 풀을 뜯게 한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우(牧牛)라는 현재의 한자(漢字) 표기 이름에 대한 재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목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길의 좁은 곳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사람의 목과도 통하고, 나아가서 좁은 고개를 뜻한다. 길게 늘어진 고개를 늘으목, 늘목이라고 부르다가 노루목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목은 고개의 뜻이다. 따라서 목우(牧牛)재는 고개의 뜻인 목에 또 고개란 의미의 재가 중첩 사용되어 목재라고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우재 또는 모기재로 변한 것이고, 그후 이것을 한자(漢字)로 목우(牧牛)재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명용사의 비(無名 勇士의 碑): 정고평(丁庫坪)에 있으며, 원명은 이름 모를 자유 용사의 비이다.

1965. 10. 30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에서 반공 애국 유적 부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다. 6. 25사변 때 설악산(雪嶽山) 산악전에서 중공군을 맞아 용감히 싸운 수도사단, 11사단, 5사단, 순국 장병과 군번없이 참전했다가 산화한 학도결사대, 호림(虎林)부대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것인데, 장 호강(張虎崗) 시인이 지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아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靈)들, 조국의 신이며, 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혼은 겨레의 가슴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千秋)에 부를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무궁(永永無窮)할지어다.」

비룡교(飛龍橋): 케이블카 바로 밑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 소공원에서 비룡폭포(飛龍瀑布)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전에는 재향군인회(在鄉軍人會)에서 관리하였으므로 향군교(鄉軍橋)라고 했었음.

B지구: 노루목 고개에서 청봉교(青峰橋)까지 여관, 상가가 들어선 지대. 설악산(雪嶽山) 개발 계획때 구단지를 A지구로 정하여 소공원으로 정비하고, 그밑을 B지구와 C지구로 구분하여 여관 상가가 들어선 신단지로 개발한 데서 유래됨. 옛날의 노루목, 즉 장항(獐項)과 거의 일치함.

설악교(雪嶽橋): 신단지 C지구에 있는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

설악산 지구 전적비(雪嶽山 地區 戰跡碑): 소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1978. 11. 10 정부에서 6. 25때 설악산(雪嶽山) 지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움

비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 청봉(青峰) 높은 봉우리

돌 하나 옮겨 세우니

이는 천만년을 이어갈

역사의 표말(標抹)이다.

바람 꽃

아름다운 저 능선을

적구(赤狗)가 짓밟을 제

맹호(猛虎)의 노호(怒號)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雪嶽)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어찌 향로(香爐)와 건봉(乾鳳)이

저기에 있으리오.

5월 초목

단심(丹心)으로 물들인 충혼이

돌과 더불어 길이 남으리라.」

세계 생물권 보존비: 소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1982. 8. 12 설악산(雪嶽山)을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서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983년 4월 이 비를 건립함.

세심교(洗心橋): 소공원에서 신흥사(神興寺)로 가는 길목인 세심천(洗心川)에 놓인 다리.

세심천(洗心川): 신흥사(神興寺) 앞 넷가로 쌍천(雙川)의 한 줄기가 된다. 부처님이 계시는 성지 신흥사(神興寺) 입구에 있으므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에서 세심천(洗心川)이라고 함.

소공원: 1976년 설악동(雪嶽洞)의 구단지 기존 여관촌을 철거한 뒤,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따라 그 자리에 조성한 휴식 공간. 공원 안에 설악산 지구 전적비(雪嶽山 地區 戰跡碑), 세계 생물권 보존비, 자연보호 현장비, 설악(雪嶽) 관광 호텔 등이 있다. 새로 조성된 여관촌을 신단지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곳을 구단지, 또는 설악산(雪嶽山) 국립공원 개발 계획 구역 명으로 A지구라고도 한다.

신단지: 1976년 설악산(雪嶽山)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의하여 구단지의 여관·상가가 철거되고 그 밑(동쪽)에 새로 조성된 관광 단지. 신단지는 다시 노루목 일대의 B지구와 팅골 입구의 C지구로 구분된다.

쌍천(雙川)→4 대포동(大浦洞), (3) 내물치리(內勿淄里) 쌍천(雙川) 참조

C지구: 1976년 설악산(雪嶽山)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신단지의 한 지역. 종래 지명으로는 팅골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A지구: 1976년 설악산(雪嶽山) 국립공원 개발 계획 때, 여관·상가가 있던 구단지를 A지구로 정하여 소공원으로 정비하였다. 이때부터 구단지, 즉 현재의 소공원 지역을 A지구라고도 한다.

와선교(臥仙橋): C지구에 있는 다리. 팅골에서 내려오는 시내가

쌍천(雙川)에 합류하기 직전 지점에 놓여 있다.

이름 모를 자유 용사의 비→무명 용사의 비

잠수교: 정고평(丁庫坪)에 위치한 다리. 저항령(低項嶺)에서 내려 오는 계곡물을 건너는 다리인데, 여름철에 물이 많으면 물에 잠기므로 잠수교라고 한다.

장항(獐項)→노루목

장항리(獐項里)→설악동(雪嶽洞) 참조

정고(丁庫)→정고평(丁庫坪)

정고리(丁庫里)→정고평(丁庫坪)

정고평(丁庫坪): 소공원에서 비선대(飛仙臺)로 가는 중간에 있는 벌판. 현재 휴게소와 무명 용사의 비가 위치하고 있다. 이전에 마등령(馬登嶺)으로 넘어다닐 때 백담사(百潭寺)의 곳집이 있었으므로 정고(丁庫)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고(丁庫)를 발음상 정구라고도 했고, 벌판이므로 정고평(丁庫坪), 마을이 있었으므로 정고리(丁庫里)라고도 했다. 정고(丁庫)를 정고(停庫)라고도 표기한다.

정구→정고평(丁庫坪)

찬샘내기: 정고평(丁庫坪) 서쪽에 있는 골짜기. 찬 샘물이 나온다.

청봉교(青峰橋):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 B지구와 C지구를 연결 한다.

치마장(治馬場): 소공원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가다가, 군량장(軍糧場)을 지나서 정고평(丁庫坪) 못 미쳐 나오는 벌판. 옛날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탑벌: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 일대의 벌판. 즉 현재 뉴설악 관광 호텔 자리. 이전에 민가가 있었다.

토왕성리(土旺城里): 이전에 비룡교(飛龍橋) 건너편 소토왕골에 있었던 마을.

핏골: 현재 C지구가 위치한 골짜기.

(2) 설악산(雪嶽山)

강원도(江原道) 속초시(束草市), 양양군(襄陽郡), 인제군(麟蹄郡), 고성군(高城郡)에 걸쳐 있는 산. 주봉인 대청봉(大青峰)은 해발 1,708m이다. 속초(束草)·양양(襄陽) 쪽을 외설악(外雪嶽), 인제(麟蹄) 쪽을 내설악(內雪嶽)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요즘은 양양(襄陽) 오색(五色) 쪽을 남설악(南雪嶽)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1965. 11. 5 설악산(雪嶽山)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고, 1969년에는 관광지, 1970. 3. 24에는 국립공원, 1973년 12월에는 공원 보호 구역, 1982. 8. 12에는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 의해서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른 말로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외설악(外雪嶽) 쪽만을 설악(雪嶽)이라고 했고, 내설악(內雪嶽) 쪽은 별도로 한계산(寒溪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32 잡지(雜志) 제1 제사에 보면, 신라(新羅)에서는 설악(雪嶽)을 영산이라고 하여 소사(小祀, 작은 제사)를 지냈다고 적혀 있어, 늦어도 신라(新羅) 때 부터는 설악(雪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악(雪嶽)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는 3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눈이 일찍 오고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가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둘째, 암석의 색깔이 눈같이 하얗기 때문에 설악(雪嶽)이라고 이름하였다. 「산봉우리가 줄을 지어 솟았고 암석의 색깔이 모두 눈같이 하얗기 때문에 이름이 유래되었다.(峰巒聳列石色皆如雪

故名)」—금원(錦園)여사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세째, 이 은상(李殷相)은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의 우리 고어 술뫼가 변해서 雪嶽이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술은 우리 고어로 서 신성·숭고·고결·생명을 뜻하는 말이며, 설악(雪嶽)의 설은 술의 음역(音譯)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민속학자 황 호근(黃沴根)선생이 당시 속초(束草) 관광협회장이었던 양 권일(楊權一)씨와 함께 설악산(雪嶽山)의 경관을 답사하고 옛 선인들의 삶과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등을 참고하여, 8가지 기이한 자연현상인 8기(奇)와 8가지 좋은 자연경관인 8경(景)을 제정했다.

《설악8기(雪嶽八奇)》

천후지동(天吼地動): 여름 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으레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거려서, 온통 하늘이 찢어지는 듯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는 듯이 지축이 혼들린다.

거암동석(巨岩動石): 큰 바위가 한 사람의 힘으로도 쉽게 혼들린다.

전석동혈(轉石洞穴): 계조굴(繼祖窟)같이 바위가 바위와 서로 맞대어 하나의 자연굴을 만들었다.

백두구혈(百斗歐穴): 내설악(內雪嶽) 외가평(外加坪)에서 백담사(百潭寺)로 가는 도중에 있는 구혈(斷穴)은 콩 백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다. 옛날에 학이 날아간 자국이라고 전한다.

수직절리(垂直節理): 천불동(千佛洞) 골짜기의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모두 수직으로 갈라져서 온갖 형상을 하고 있다.

유다탕폭(有多湯瀑): 폭포가 있는 곳에는 으레 소(沼)나 못(淵)이 있는데, 설악산(雪嶽山)에는 바위가 많아서 유독 탕(湯)이 많다. 내설악(內雪嶽)의 12선녀탕이 대표적이다.

금강유혈(金剛有穴): 미륵봉(彌勒峰)의 금강굴(金剛窟) 같이 큰 석산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은 신기롭고 기이하다.

동계지설(冬季遲雪): 설악산(雪嶽山)에는 겨울 늦으막하게 눈이

많이 온다.

《설악8경(雪嶽八景)》

용비승천(龍飛昇天): 설악산(雪嶽山)에는 폭포가 많고, 폭포 물줄기를 바라보면,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이 올라가는 듯하여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

운악무해(雲嶽霧海): 산봉우리는 구름 위에 솟아있고,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겨있는 풍경이다.

칠색유홍(七色有虹): 폭포에서 생기는 비말(飛沫, 날아 흘어지는 물방울)에 아침이면 햇빛이 반사되어 영롱한 7색의 무지개가 선다.

개화설경(開花雪景): 겨울이 오면 온 산이 눈꽃으로 덮인다.

홍해황엽(紅海黃葉):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뭇잎은 누렇게 변해 골짜기마다 마치 수놓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은 광경이 벌어진다.

춘만척촉(春滿躡躅): 봄에 대청봉(大青峰)에는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하여 산에 가득하다.

월야선봉(月夜仙峰): 가을이 와서 밤하늘이 맑을 때, 등근 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괴봉의 모습이 선녀같이 보인다.

만산향훈(滿山香薰): 봄에 눈향나무가 다시 소생하면 그 냄새가 산에 가득하여 바람이 불면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① 능선 · 고개 · 길

공룡(恐龍) 능선: 마등령(馬登嶺)에서 회운각(喜雲閣) 못미쳐 바로 북쪽 신선암(神仙岩)까지의 바위 능선. 바위가 뾰족하여 마치 공룡(恐龍)의 등같이 생겼다. 나한봉(羅漢峰), 1,275m봉, 노인봉(老人峰), 1,184m봉이 위치하고 있다. 1963년 겨울 선우중옥, 정규현, 채태웅 팀이 처음으로 공룡(恐龍)능선을 주파하였다.

늘목령→저항령(低項嶺)

동북(東北)능선→화채(華彩)능선

마등령(馬登嶺): 내·외설악(內·外雪嶽)을 연결하는 고개 중의 하나. 동으로 금강굴(金剛窟), 비선대(飛仙臺), 서로는 오세암(五歲庵), 백담사(百潭寺), 남으로 공룡(恐龍)능선, 대청봉(大青峰), 북으로는 저항령(低項嶺), 황철봉(黃鐵峰), 미시령(彌矢嶺)으로 연결된다. 지금은 등산객들만이 넘어 다니나, 예전 도보시대에는 행상인, 민간인들이 동·서를 넘어다닐 때 이용한 옛길 중의 하나였다.

말동처럼 생겼다고 하여 마등령(馬登嶺)이라고 하였다 한다. 현재는 대부분 마등령(馬登嶺)으로 표기하나, 옛기록에는 모두 마등령(馬等嶺)으로 되어 있다. 또 《설악(雪嶽)의 뿌리》에는 마등령(摩登嶺)으로 표기하여, 산이 험준하여 손으로 기어 올라가야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너미고개: 천불동(千佛洞)계곡과 가야동(伽倻洞)계곡의 경계에 위치하여 내·외설악(內·外雪嶽)을 구분지으며, 고개 바로 북쪽에 희운각(喜雲閣)대피소가 있다. 무너미의 무는 물에서, 너미는 넘는다(건넌다)에서 왔음이 틀림없다. 물을 넘는다(건넌다)란 뜻의 무너미를 한자(漢字)로 수유(水踰), 수월(水越)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이 지명도 전국에 무수히 많이 분포한다.

범봉길: 설악(雪嶽)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범봉으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북주능선(北主稜線): 대청봉(大青峰)에서 북쪽으로 마등령(馬登嶺), 저항령(低項嶺), 황철봉(黃鐵峰),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까지 이어지는 설악산(雪嶽山)의 북쪽 주능선(主稜線).

석주(石柱)길: 설악(雪嶽)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으로 염라(閻羅)길, 흑범길이 있음.

염라(閻羅)길: 설악(雪嶽)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에는 흑범길, 서쪽에는 석주길이 있음.

저항령(低項嶺): 북주능선(北主稜線)에 있는 고개 중의 하나. 동

쪽으로는 정고평(丁庫坪)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路洞)을 거쳐 백담사(百潭寺)에 이른다.

다른 말로 늘목령이라고도 하는데, 저항령(低項嶺), 늘목령 모두 노루목고개, 목우(牧牛)재와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진 고개라는 의미의 늘으목, 늘목에서 유래하였다. 즉 늘목령은 늘목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늘목령이 된 것이고, 저항령(低項嶺)은 늘목이 노루목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漢字)로 장항(獐項)이라고 표기하여, 거기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장항령(獐項嶺)이라고 하던 것이, 발음상 저항령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漢字)로 의미와는 관계없이 저항령(低項嶺)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볼 때 저항령(低項嶺)도 마등령(馬登嶺)처럼 옛날부터 이용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지덕: 화채(華彩)능선 칠성봉(七星峰) 동쪽에 함지처럼 푹 파인 분지.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음.

화채(華彩)능선: 대청봉(大青峰)에서 시작하여 화채봉(華彩峰), 칠성봉(七星峰),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까지 이어진 능선. 일명 동북(東北)능선이라고도 한다.

화채동능선(華彩東稜線): 화채봉(華彩峰)에서 동쪽으로 송암산(松岩山)까지 뻗어나간 능선.

흑범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서편으로 염라길, 석주길이 있다.

희운각(喜雲閣): 천불동(千佛洞)계곡과 가야동(伽倻洞)계곡의 경계인 무너미고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대피소. 1971년 한국산악회 최태묵(崔泰默)씨가 건립했다. 지금은 그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 됨. 동쪽으로는 천불동(千佛洞)계곡, 서쪽으로는 가야동(伽倻洞)계곡, 남쪽으로는 대청봉(大青峰), 북쪽으로는 공룡(恐龍)능선으로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② 봉(峰)

나한봉(羅漢峰): 공룡(恐龍)능선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마동

령(馬登嶺)과 1,275m봉 사이에 있음. 불교의 수호신인 나한(羅漢)에서 그 이름이 유래됨.

노인봉(老人峰): 공룡(恐龍)능선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해발 1,120m. 1,275m봉에서 희운각(喜雲閣) 방향으로 첫번째 나타나는 봉우리.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은 20개의 암봉을 천화대(天花臺)라고 한다.

노적봉(露積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동쪽 봉우리. 토왕골과 소토왕골 중간에 있다.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형태임.

달마봉(達磨峰): 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 해발 635m. 산봉우리가 달마대사(達磨大師)의 모습처럼 등글등글하다고 하여 달마봉(達磨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청봉(大青峰): 다른 말로 상청봉(上青峰), 또는 청봉(青峰)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의 주봉으로, 해발 1,708m이다. 바로 밑(북서쪽)에 중청봉(中青峰)이 있고, 그 밑(북쪽)에 소청봉(小青峰)이 있다.

무진자(無盡子)가 지은 《오세암사적(五歲庵事蹟)》에는 청봉(青峰)을 봉황대(鳳凰臺)라고 했으며, 성해옹(成海應)의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봉정(鳳頂)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황대(鳳凰臺)의 정상인 봉정(鳳頂)은 설악(雪嶽)의 맨 꼭대기이다. (鳳頂卽嶽之極處)」

청봉(青峰)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청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青峰)이라고 하였다. (遠見只縹緲而青故指其絕頂而名曰青峰)」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은상(李殷相)은 봉황대(鳳凰臺), 봉정(鳳頂), 청봉(青峰) 등은 우리 조상들의 옛 신앙의 근원이었던 광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금은 정상 부위에 대청봉이라고 새긴 자연석 비석과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새긴 비석, 태극기가 있으나, 이전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제단에는 가운데에 설악상봉국사천왕불

신지위(雪嶽上峰國司天王佛神之位), 왼쪽에 팔도산신중도신령(八道山神中道神靈), 오른쪽에 설악산신령(雪嶽山神靈)이라고 쓴 위패가 모셔져 있어 봄, 가을로 산신제를 모셨다고 한다.

문수봉(文殊峰): 토왕성(土旺城)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옆에 문수(文殊)보살과 보현(普賢)보살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峰) 옆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위치하고 있다. 일명 문주봉(文珠峰)이라고도 한다.

문주봉(文珠峰)→문수봉(文殊峰)

문필봉(文筆峰): 토왕성(土旺城)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모양이 붓처럼 생긴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미륵봉(彌勒峰): 비선대(飛仙臺) 바로 북쪽에 높이 우뚝 솟은 큰 돌산. 마치 미륵불(彌勒佛)처럼 우뚝 솟아 있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짐. 또는 장군의 형상이라고 하여 장군봉(將軍峰)이라고도 한다. 중턱에 금강굴(金剛窟)이 뚫려져 있다.

범봉: 천화대(天花臺)의 20여개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보현봉(普賢峰): 토왕성(土旺城)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양 옆에 문수(文殊)보살과 보현(普賢)보살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峰) 양쪽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위치하고 있다.

봉정(鳳頂)→대청봉(大青峰)

봉황대(鳳凰臺)→대청봉(大青峰)

상청봉(上青峰)→대청봉(大青峰)

석가봉(釋迦峰): 토왕성(土旺城)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불교의 설명대로 양 옆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있다.

세존봉(世尊峰): 마등령(馬登嶺) 밑(동쪽) 금강문(金剛門) 바로 위(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존칭인 석가세존(釋迦世尊)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소청봉(小青峰): 대청봉(大青峰) 바로 북서쪽에 있는 작은 청봉(青峰).

왕관봉(王冠峰): 천화대(天花臺)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육동치(六同峙)→**육형제봉(六兄弟峰)**

육형제봉(六兄弟峰): 양폭(陽瀑)산장 뒤로 보이는 여섯 봉우리.

장군봉(將軍峰)→**미륵봉(彌勒峰)**

중청봉(中青峰): 대청봉(大青峰)과 소청봉(小青峰) 사이에 있는 청봉(青峰).

진대봉: 마등령(馬登嶺) 바로 북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1,327m.

최근에 등산객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불리어진 지명인 것 같으나, 요즘은 거의 망각되어지고, 지도에도 1,327m봉으로 표기되고 있다.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뒷쪽(남쪽)에 연이어 있는 암봉. 수직절리의 암봉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마치 신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천후산(天吼山)→③ 바위의 울산(蔚山)바위 참조.

청봉(青峰)→**대청봉(大青峰)**

취적봉(翠滴峰): 토왕성(土旺城)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칠성봉(七星峰): 화채(華彩)능선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해발 1,077m. 남쪽 화채봉(華彩峰)과 북쪽 집선봉(集仙峰) 중간에 있다.

칠형제봉(七兄弟峰): 공룡(恐龍)능선 신선암(神仙岩) 북쪽에서 천불동(千佛洞)계곡을 향하여 용소골과 잣은바위골 사이로 뻗은 여러개의 봉우리.

화채봉(華彩峰): 화채(華彩)능선의 대표적 봉우리.

황철봉(黃鐵峰): 북주능선(北主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남쪽으로는 저항령(低項嶺), 마등령(馬登嶺), 공룡(恐龍)능선으로, 북쪽으로는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으로 이어진다.

③ 바위, 대(臺), 굴

걸문다지→귀면암(鬼面岩)

걸문당→귀면암(鬼面岩)

귀면암(鬼面岩): 천불동(千佛洞) 계곡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 비선대(飛仙臺)와 양폭(陽瀑) 사이에 있다.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鬼面岩)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귀면암(鬼面岩)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이고, 원래 옛날에는 천불동(千佛洞) 계곡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마치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걸문다지 또는 걸문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금강굴(金剛窟): 비선대(飛仙臺)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 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 일찌기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온다. 이전에도 불을 떴던 구들의 혼적과 불상 등의 유물이 있었고, 요즘에는 신흥사(神興寺)의 부속암자로 되어서 새 불상을 모셔 놓았다.

금강문(金剛門): 마등령(馬登嶺)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2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있는데, 바위가 길 양쪽에 문기둥처럼 서 있다.

동석(動石)→흔들바위

만경대(萬景臺): 화채봉(華彩峰)에서 양폭(陽瀑)으로 내려오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좁고 높은 지대. 주위 전망이 좋아 많은 경관을 볼 수 있으므로 만경대(萬景臺)라고 하며, 또는 많은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망경대(望景臺)라고도 한다. 윤홍열(尹弘烈)은 설악산(雪岳山)에는 만경대(萬景臺)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곳이 2군데나 있고, 또 여기에 서면 주위의 경치로 인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무아대(無我臺)라고 명명하였다.

망경대(望景臺)→만경대(萬景臺)

망군대(望軍臺): 권금성(權金城) 북쪽의 높은 암봉. 옛날에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군대(望軍臺)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봉화를 올려 신호를 하던 곳이라고 하여 봉화대(烽火臺)라고도 한다.

목탁바위: 계조암(繼祖庵)이 위치한 자연석굴을 형성한 바위. 달마봉(達磨峰)에서 내려다보면 계조암(繼祖庵) 석굴이 목탁처럼 보인다고 한다. 계조암(繼祖庵)은 조사(祖師)들이 계속하여 배출된 암자라는 뜻인데, 목탁 속에서 수도하기 때문에 쉽게 득도하게 된다고 한다.

무아대(無我臺)→만경대(萬景臺)

봉화대(烽火臺)→망군대(望軍臺)

봉황대(鳳凰臺)→② 봉(峰)의 대청봉(大青峰) 참조

비선대(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 바로 뒤에 미륵봉(彌勒峰)이 우뚝 솟아 있다. 소공원에서 여기까지는 보통 길이나, 여기서부터는 등산로가 시작되어 남쪽으로는 천불동(千佛洞)계곡이 나타나고, 서쪽으로는 마등령(馬登嶺)으로 이어짐.

조금 못미쳐 있는 와선대(臥仙臺)에 누워서 경치를 감상하던 마고선(麻姑仙)이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비선대(飛仙臺)라고 한다.

옛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큰 글짜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더러 얘기되는 것처럼 양사언(楊士彦)이 쓴 것이 아니고,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양양읍지(襄陽邑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김창흡(金昌翕)은 비선대(飛仙臺)에 와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경대(瓊臺)같은 맑은 물을 굽어 보니
부채같은 청봉(青峰)이 그곳에 펼쳐졌네.
이곳이 생길 때 묘리(妙理)를 갖추었던가?」

그 세(勢)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奇壯)한가!

(瓊臺俯金潭

右扇排青峰

融時備衆妙

豈惟勢奇壯)」

그외에도 많은 시인들의 시가 전해온다.

쇠뿔바위→흔들바위

식당바위→와우암(臥牛岩)

식당암→와우암(臥牛岩)

신선대(神仙臺)→신선암(神仙岩)

신선암(神仙岩): 희운각(喜雲閣)에서 북쪽으로 올려다 보이는 암봉. 일명 신선대(神仙臺)라고도 한다. 마등령(馬登嶺)에서 신선암(神仙岩)까지가 공룡(恐龍)능선이다.

쌍동암(雙童岩): 계조암(繼祖庵) 밑에 있는 바위. 바위의 형상이 마치 두 아이가 길 양쪽에 서 있는 것 같다.

쌍룡암(雙龍岩): 계조암(繼祖庵) 문 앞 양쪽에 있는 바위.

와선대(臥仙臺): 소공원에서 비선대(飛仙臺) 조금 못미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고선(麻姑仙)이 누워서 산수를 즐긴 곳이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너럭바위(즉 이것이 臥仙臺라고 불리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가 있었으나, 홍수로 상류에서 바윗돌이 떠내려와서 너럭바위(臥仙臺) 위에 얹혀 있으므로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현재 휴게소가 있는 그 앞의 계곡이 와선대(臥仙臺) 자리이다. 전설에 의하면 여기서 누워서 놀던 마고선(麻姑仙)이 비선대(飛仙臺)에서 승천했다고 한다.

와우석(臥牛石)→와우암(臥牛岩)

와우암(臥牛岩): 계조암(繼祖庵) 앞에 있는 넓고 평평한 바위.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고 하여 와우암(臥牛岩), 와우석(臥牛石)이라고 하며, 그 위에 있는 흔들바위를 일명 우각석(牛角石)이라고 한다. 또 백여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고

하여 식당바위, 식당암이라고도 한다.

용암석(龍岩石)： 와우암(臥牛岩) 맞은 편에 있는 용처럼 생긴 바위.

우각석(牛角石)→흔들바위

울산(蔚山)바위： 외설악(外雪嶽) 북쪽에 위치한 해발 650m의 거대한 바위산.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바위의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다. 이것은 화강암에서 발달하는 구혈(甌穴)현상으로 바위가 침식을 일으켜 이루어진 구멍이다. 여기에 천연의 빗물이 고여 있는데, 무색, 무미, 무취해서 영수(靈水)로 일컬어진다. 사방이 절벽이고 암벽이 협난하여 일반 사람은 등반하기 어려웠으나, 근년에 도문동(道門洞) 오수영 씨가 쇠다리를 가설하여, 지금은 누구든지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3가지 설명이 전해진다.

첫째, 조물주가 금강산(金剛山)을 만들 때,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蔚山) 지방의 거대한 바위가 금강산(金剛山)으로 찾았다가 여기에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에 울산(蔚山)바위라고 한다.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울산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울타리 리(籬)’자를 써서 이산(籬山)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도 호부(襄陽都護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산(籬山)： 부(府)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 오늘날의 青草湖) 서쪽에 있는데, 곧 태백산맥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籬山)이라고 이름하였다. 일명 울산(蔚山)이라고도 한다. (籬山在府北六十三里雙成湖西卽大領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세째, 우는 산, 올고 있는 산이란 의미의 울산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산 전체가 뉘성에 올리어 흡사 산이 올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고 하여 올산, 또는 한자어(漢字語)로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에는 이산(籬山)이라고 하였으나, 간성군(杆城郡)에는 유래에 대한 설명 없이 천후산(天吼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올산(蔚山)바위는 이전부터 양양(襄陽), 간성(杆城) 두 고을의 경계에 위치했으며, 지금도 속초시(束草市)와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후의 간성읍지(杆城邑誌)들에는 모두 천후산(天吼山)의 유래에 대하여, 위의 설명과는 달리 바위굴에서 바람이 나와서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고 하며, 양간지풍(襄杆之風, 襄陽과 杆城 사이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말로, 襄陽과 江陵을 들어 襄江之風이라고도 한다.)은 이 바위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울산암(蔚山岩)→울산(蔚山)바위

유선대(遊仙臺): 비선대(飛仙臺)에서 마등령(馬登嶺)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금강굴(金剛窟)을 지나서 나타나는 바위군. 경치가 아름다워서 신선이 놀다갔다고 한다.

천화대(天花臺): 공룡(恐龍)능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1, 275m봉에서 희운각(喜雲閣) 방향으로 첫번째 나타나는 노인봉(老人峰, 1,120m)이라고 부르는 암봉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약 20개의 연봉을 말한다. 주봉은 범봉이다. 외설악(外雪嶺)에서 가장 날카로운 봉우리가 밀집되어 있어서 암벽 등반을 즐기는 클라이머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1969년 한국산악회 해외원정훈련대의 10동지 조난 사고 후, 당시 설악(雪嶺) 산악회장이던 이 기섭(李基燮) 박사와 설악산(雪嶺山) 개발위원회가 하늘 나라의 꽃처럼 피어 오른 곳이란 뜻으로 천화대(天花臺)라고 명명하였다.

겨울 동반으로는 1974년 1월 어센트 산악회의 전병구, 정두성, 박종대, 박남식, 이영설이 처음 등정하였다.

흔들바위: 계조암(繼祖庵) 앞 와우암(臥牛岩) 위에 놓인 등글게 생긴 바위.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흔들) 수 있으나, 백사람의 힘으로도 같은 정도밖에 움질일(흔들) 수 없는 신기한 바위이다. 움직이는 바위이므로 한자(漢字)로 동석(動石)이라고도 하고, 또 와우암(臥牛岩) 위에 있어서 소의 뿔에 해당한다고 하여 쇠뿔바위, 즉 우각석(牛角石)이라고도 한다. 원래 2개가 있었으나 하나는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④ 골짜기

가는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약간 가다가 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권금성(權金城) 뒤 집선봉(集仙峰)까지 이어진다.

구만물상(舊萬物相)골→칠선골

내원(內院)골: 신흥사(神興寺)에서 내원암(內院庵) 쪽(서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무당골→소토왕골

문(門)바위골: 저항령(低項嶺)계곡 중간에서 황철봉(黃鐵峰)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설악(雪嶽)골: 천불동(千佛洞) 계곡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 천불동(千佛洞)계곡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토막골 다음에 나타나는 골짜기. 공룡(恐龍)능선까지 이어진다.

소토왕(小土旺)골: 소공원에서 비룡교(飛龍橋)를 건너서 바로 남쪽으로 나타나는 골짜기. 토왕골의 바로 서편 골짜기로서 그 사이에 노적봉(露積峰)이 있다. 일명 무당골이라고도 한다.

식은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남동쪽으로 권금성(權金城)까지 뻗은 골짜기.

염주(念珠)골: 음(陰)폭포에서 남쪽으로 염주(念珠)폭포를 거쳐 화채(華彩)능선까지 뻗은 골짜기. 서편으로 죽음의 계곡이 있다. 골짜기 중간에 염주(念珠)폭포가 있으므로 염주(念珠)골이라고 하며, 또 입구에 음(陰)폭포가 있으므로 음(陰)폭골이라고도 한다.

용소(龍沼)골: 천불동(千不洞)계곡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을 지나 오련(五連)폭포 못미쳐서 오른편(서쪽)으로 들어간 골짜기. 신선암(神仙岩) 부근까지 뻗었다.

잦은바위골: 천불동(千佛洞)계곡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귀면암(鬼面岩)을 향해 가다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雪嶽)골 다음에 나오는 골짜기.

죽음의 계곡: 천불동(千佛洞)계곡 맨 끝 골짜기. 대청봉(大青峰)에서 회운각(喜雲閣)으로 직접 내려오는 능선길 바로 동편 골짜기. 1969년 한국산악회원 10동지가 해외원정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조난당한 곳이다. 1956년 8월 한국산악회원 전감(田堪)씨가 처음 등반하였으며 아직 뚜렷한 등반로는 없다.

풍수지리적으로 설악산(雪嶽山)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산세라고 한다. 대청봉(大青峰)은 닭의 머리 부분인 부리이고, 화채(華彩)능선이 닭의 오른쪽 날개, 서북(西北)능선이 닭의 왼쪽 날개, 공룡(恐龍)능선이 닭의 몸통, 죽음의 계곡이 닭의 목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닭의 목에 먹이가 되는 것이 붙어 있을 때, 닭이 그것을 쪼아 먹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천불동(千佛洞)계곡: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青峰)에 이르는 설악산(雪嶽山)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 협곡을 이룬 계곡 양쪽의 기암괴봉들이 마치 천불(千佛)이 꽉 들어차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설악(雪嶽)을 대표하는 절경들이 거의 이 골짜기에 밀집되어 있다.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青峰)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雪嶽)골, 잦은 바위골, 용소(龍沼)골,

왼편(동쪽)으로 칠선골, 염주(念珠)골, 죽음의 계곡이 갈라진다.
칠선골: 천불동(千佛洞) 계곡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에서 양폭(陽瀑)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오련(五連)폭포 못미쳐 왼편(동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구만물상(舊萬物相)골이라고도 한다.

토막골: 천불동(千佛洞)계곡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바로 오른편으로 갈라진 골짜기.

토왕(土旺)골: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육담(六潭)폭포, 비룡(飛龍)폭포, 토왕성(土旺城)폭포가 위치하고 있다.

핏골: 신단지 C지구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⑤ 폭포, 담(潭)

건폭(乾瀑)→건(乾)폭포

건(乾)폭포: 죽음의 계곡에 있는 폭포.

문수담(文殊潭): 비선대(飛仙臺)와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다. 문수(文殊)보살이 목욕을 한 곳이라고 하며, 일명 문주담(文殊潭)이라고도 한다.

문주담(文珠潭)→문수담(文殊潭)

비룡(飛龍)폭포: 토왕(土旺)골에 있는 폭포. 육담(六潭)폭포와 토왕성(土旺城)폭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수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신광(神光)폭포→토왕성(土旺城)폭포

양폭(陽瀑)→양(陽)폭포

양(陽)폭포: 천불동(千佛洞)계곡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밑의 오련(五連)폭포와 바로 위의 천당(天堂)폭포 중간에 있다. 음(陰)폭포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陽)폭포는 곁에 있으므로 양(陽)폭포이고, 음(陰)폭포는 음폭(陰瀑)골에 들어가서 속에 있으므로 음(陰)폭포이다.

현재는 양(陽)폭포라는 말보다 양(陽)폭포를 줄여서 부르는

양폭(陽瀑)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또 양폭(陽瀑)이라는 말은 폭포를 의미할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그 주변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염주(念珠)폭→염주(念珠)폭포

염주(念珠)폭포：염주(念珠)골에 있는 폭포. 음(陰)폭포에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염주(念珠)같다고 하여 염주(念珠)폭포라고 한다.

오련(五連)폭포：천불동(千佛洞)계곡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과 양(陽)폭포 사이에 있다. 깍아지른 듯한 바위 협곡 사이에 5개의 폭포가 연이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폭포 일대의 암벽을 천불동(千佛洞)계곡 앞문의 수문장 같다고 하여 앞문다지라고 하였다.

육담(六潭)폭포：토왕(土旺)골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소공원에서 비룡(飛龍)폭포로 가는 길 중간에 있다. 암벽으로 된 협곡에 6개의 폭포와 담소(潭沼)가 연달아 이어져 있어서 절경을 이룬다. 폭포 위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음폭(陰瀑)→음(陰)폭포

음(陰)폭포：음폭(陰瀑)골 입구에 있는 폭포. 양(陽)폭포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陽)폭포는 천불동(千佛洞)계곡 곁에 있으므로 양(陽)폭포이고, 음(陰)폭포는 음폭(陰瀑)골 속에 있으므로 음(陰)폭포라고 명명되었다.

이호담(二壺潭)：문수담(文殊潭)과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는 담(潭). 배가 불룩한 병 모양의 아담한 담(潭)이 2개가 있어 이호담(二壺潭)이라고 한다. 한자(漢字)로 이호담(二湖潭)이라고도 표기한다.

천당(天堂)폭포：천불동(千佛洞)계곡 양(陽)폭포 바로 위에 있는 폭포. 위태롭게 석벽에 설치한 철계단을 오르면서 천당(天堂)폭포를 바라보면 천당(天堂)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칠선(七仙)폭포：칠선(七仙)골에 있는 폭포.

토왕성(土旺城)폭포: 토왕(土旺)골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外雪嶽)을 대표하는 폭포.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土旺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석가봉(釋迦峰), 문수봉(文殊峰), 보현봉(普賢峰), 노적봉(露積峰), 취적봉(翠滴峰), 문필봉(文筆峰) 등이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런 이름이 붙을 만하다.

그러나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토왕성(土旺城)이라고 표기하여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토왕성(土旺城): 부(府) 북쪽 50리 지점인 설악산(雪嶽山)의 동쪽에 있다.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土姓)을 가진 어느 임금님이 이 성을 쌓았다고 한다. 폭포가 있는데, 석벽 사이로 까마득하게 날듯이 떨어진다. (土旺城在府北五十里雪嶽山東石築遺跡尙存俗傳古有土姓王築此云有瀑布數千丈飛下石壁間)」

그후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에도 모두 토왕성(土旺城)이라고 표기하여, 옛 성터가 남아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일명 신풍(神光)폭포라고도 한다.

(3) 신흥사(神興寺)

외설악(外雪嶽)의 대표적 사찰.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大韓佛教 曹溪宗) 제3교구 본사(本寺)이다.

일찌기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6년, 652년에 현재의 뉴설악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라는 절을 창건했다. 향성(香城)이라는 명칭은 ‘중향성불국토(衆香城佛國土)’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香城寺)는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못하여, 신라(新羅) 효소왕(孝昭王) 7년, 698년에 불타 버렸다. 그후 3년 후인 효소왕(孝

昭王) 10년, 701년에 의상조사(義湘祖師)가 현재의 내원암(內院庵) 자리인, 향성사(香城寺) 암자 능인암(能仁庵) 터에 절을 중창하여, 절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로 개칭했다. 그러던 것이 조선(朝鮮) 인조(仁祖) 20년, 1642년에 선정사(禪定寺)마저 불타버리자, 2년 후인 인조(仁祖) 22년, 1644년에 영서(靈瑞), 혜원(惠元), 연옥(蓮玉) 3스님이 선정사(禪定寺) 아래쪽 약 1.5km 지점에 다시 절을 짓고 절 이름을 신흥사(神興寺)라고 한 것이 현재의 신흥사(神興寺)이다.

절 이름을 신흥사(神興寺)라고 하게 된 것은, 영서(靈瑞), 혜원(惠元), 연옥(蓮玉) 3스님이 절의 재건에 매진하고 있을 때, 3스님 모두의 꿈에 비범한 백발 신인(神人)이 출현하여 현 신흥사(神興寺) 터를 누만대 3재(災)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점지해준 데서 붙여진 것이다.

신흥사(神興寺)는 1912년 31본산 제도 실시 때부터 전봉사(乾鳳寺)의 말사로 있다가, 1971년에 전봉사(乾鳳寺) 대신 대한불교 조계종(大韓佛教 曹溪宗)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5개 사암(寺庵)을 거느리고 있다.

사(寺)내의 극락보전(極樂寶殿)은 강원도(江原道) 지방 유형문화재 제14호, 경판은 강원도(江原道) 지방 유형문화재 제15호, 보제루(普濟樓)는 강원도(江原道) 지방 유형문화재 제 104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조암(繼祖庵): 신흥사(神興寺)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석굴로 된 암자. 후면(북쪽)에 올산(蔚山)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6년, 652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향성사(香城寺)를 창건할 때 동시에 건립했다고 한다. 일찌기 동산(洞山), 각지(覺智), 봉정(鳳頂) 3조사(祖師)가 항주(恒住)하면서 정진 수도했고, 또 원효(元曉), 의상(義湘) 2조사(祖師)가 서로 이어서 수도하던 도량이라고 하여 계조암(繼

祖庵)이라고 명명하였다.

내원암(內院庵): 신흥사(神興寺) 북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암자.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6년, 652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향성사(香城寺)를 건립할 때, 동시에 현재의 내원암(內院庵) 자리에 능인암(能仁庵)을 세웠으나, 효소왕(孝昭王) 7년, 698년에 향성사(香城寺)와 같이 불타 버렸다. 그후 3년 후인 효소왕(孝昭王) 10년, 701년에 의상조사(義湘祖師)가 능인암(能仁庵) 터에 절을 중건하여 선정사(禪定寺)라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朝鮮) 인조(仁祖) 20년, 1642년에 선정사(禪定寺)가 불타자, 2년 후인 조선(朝鮮) 인조(仁祖) 22년, 1644년에 현재의 신흥사(神興寺) 터에 절이 중건되어 절 이름이 신흥사(神興寺)로 바뀌고, 선정사(禪定寺) 자리에는 같은 해에 내원암(內院庵)이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내원암(內院庵)은 1914년에 금강산(金剛山) 신계사(新溪寺) 비구니 김 수영(金壽永) 스님이 중건한 것이다.

정문에는 추사(秋史) 김 정희(金正喜) 선생이 ‘내원암(內院庵)’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능인암(能仁庵)→내원암(內院庵)

선정사(禪定寺)→신흥사(神興寺)

소림암(小林庵): 달마봉(達磨峰) 기슭에 있었던 신흥사(神興寺) 부속 암자.

안락암(安樂庵): 권금성(權金城)에 있는 암자.

안양암(安養庵): 신흥사(神興寺) 동북방 500m 지점에 있는 암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6년, 652년에 향성사(香城寺)를 세울 때, 동시에 현재의 안양암(安養庵) 자리에 해운암(海雲庵)을 세웠다. 그후 화재로 소실되자, 조선(朝鮮) 정조(正祖) 9년, 1785년에 준경(俊鏡)선사가 백운동(白雲洞)의 백운암(白雲庵)을 해운암(海雲庵) 자리에 이전하여, 안양암(安養庵)이라고 이름하였다. 안양암(安養庵)이라고 한 것

은, 혜원(慧遠) 법사의 백련결사(白蓮結社)에 동참하여 안양국(安養國)에 왕생(往生)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현재의 안양암(安養庵)은 1949년에 비구니 이 대덕(李大德) 스님이 중창한 것을, 다시 1969년에 비구니 임 법지(林法知) 스님이 보수한 것이다.

향성사(香城寺)→신홍사(神興寺)

향성사지 3층석탑(香城寺址 三層石塔): 현재 뉴설악 관광호텔 앞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3층석탑. 보물 제443호로 지정된 신라(新羅)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이다.

기단(基壇)은 2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층기단은 낮고 상층기단은 높다. 탑신부(塔身部)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크고 높으나 2층과 3층은 크게 줄어들어 독특한 입체미를 나타내고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두꺼운 편이고, 전각(轉角)의 반전(反轉)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옥개(屋蓋) 발침은 5단이다. 상륜부(相輪部)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 탑은 1966년 12월에 해체되어 보수되었다. 이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3층 탑신(塔身) 상면에 $7 \times 5.5\text{cm}$, 깊이 9cm 의 네모난 사리(舍利)구멍이 있었고, 그 위에 $12 \times 9\text{cm}$ 크기의 동판이 덮혀 있어 사리(舍利)의 장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유물은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총 높이는 4.33m 이다.

해운암(海雲庵)→안양암(安養庵)

(4) 장재터

속초시(束草市)와 양양군(襄陽郡)의 경계인 쌍천(雙川)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상복2리(上福二里)에 속해 있었으나, 1983. 2. 1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C지구인 펫골과 함께 속초시(束草市) 설악동(雪嶽洞)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고 불리어진다.

군개도랑: 마을 바로 앞(북쪽)에 있는 작은 냇가. 군더더기, 쓸데 없는 갯가라는 의미의 군개에 도랑이 합쳐진 것이다.

마무골: 마을 서남쪽 골짜기.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맷돌바위: 물안골 입구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처럼 생겼다.

물안골: 마무골 서쪽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복교(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를 연결하는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 이전에는 장재터가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상복리(上福里)에 속했으므로 상복교(上福橋)라고 이름하였다.

아랫고개: 장재터에서 상복리(上福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재터와 상복리(上福里)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상복리(上福里)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윗고개가 있다.

장재평: 장재터 벌판을 부르는 이름.

7. 노학동



7.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蘆鶴洞)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蘆鶴)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것이 그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행정상 노리(蘆里)가 신설되었고, 습지대의 개발과 벼덩의 개척에 따라 더욱 더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蘆里)는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의 4동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벼덩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가 신설되었으나, 얼마 안되서 1963년 속초시(東草市)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으로 명명되었다. 관광 개발에 따라 최근에 크게 발전하고 있다.

뒷벼덩: 노리(蘆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에 걸쳐 있는 넓은 벼덩. 신흥리(新興里)는 뒷벼덩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노학동(蘆鶴洞)의 중심 마을이었던 노리(蘆里)에서 볼 때, 마을 뒤(북서쪽)에 위치한 벼덩이므로 뒷벼덩이라고 했다.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후평(後坪)이라고도 한다.

소야(所野)뜰→소야(所野)평야

소야천(所野川)→청초천(青草川)

소야(所野)평야: 오늘날의 청초천(青草川)인 소야천(所野川) 주변 일대의 벌판을 지칭하던 옛 지명. 소야(所野)뜰이라고도 했

다. 좁게 사용하면 앞버덩 만을, 넓게는 뒷버덩까지, 나아가서는 학사평(鶴沙坪)까지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버덩: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 모두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소야(所野)평야라고 한 것은 주로 이 앞버덩을 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초천(青草川):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되어, 노학동(蘆鶴洞)을 거쳐 청초호(青草湖)로 유입되는 하천. 예전에는 소야천(所野川)이라고 했다. 하류에 쌍다리가 있어서 쌍천(雙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쌍천(雙川)은 설악산(雪嶽山)에서 시작되어 도문동(道門洞)과 내물치(內勿淄) 앞을 거쳐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후평(後坪)→뒷버덩

(1) 노리(蘆里)

노학동(蘆鶴洞)의 중심 마을이며,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음. 이전에는 행정상 노학동(蘆鶴洞) 지역 전체를 관할했으나, 1942년 속초면(東草面)이 속초읍(東草邑)으로 승격될 때, 동시에 인구 증가에 따라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로 나뉘어졌다. 그러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이 되었다.

현재는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노리(蘆里)라고 한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갈골→노리(蘆里)

노동(蘆洞)→노리(蘆里)

(2) 응골

노리(蘆里)에서 청초천(青草川)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

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명이 전해온다. 하나는 마을이 청대산(青岱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지명이 무수히 많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스님이 시주를 왔을때, 스님의 시주에 잘 응해 주었다고 하여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응골의 응 자로 ‘응할 응(應)’자를 쓰는 것에 착안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루봉→3. 조양동(朝陽洞), (4) 청대리(青岱里), 두루봉 참조

맷돌바위: 맷돌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을 올려 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맷돌바위골: 마을 뒤(남쪽)에 있는 골짜기.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에 부엉이 집이 있다.

부엉이 바위골: 마을 뒤(남쪽), 맷돌바위골 서편에 있는 골짜기. 부엉이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당골: 마을 서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패를 지어 다니며 노래와 춤을 팔던 사당패들이 거쳐한 데서 이름이 유래된 것 같다. 혹은 제사를 지내던 사당(祀堂)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살인고개→**싸리재**

살인재→**싸리재**

싸리재→5. 도문동(道門洞), (1) 상도문리(上道門里), 싸리재 참조

응곡(應谷)→**응골**

응동(應洞)→**응골**

(3)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둔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전부 중심 마을 노리(蘆里)에 속하였듯이 본래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蘆里)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蘆鶴洞)으로 합쳐짐. 한자(漢字)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유래에 대하여는 복승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李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승아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승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李源)이라는 한자(漢字)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桃李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漢字)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桃李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가운데 쇠골: 마을 북쪽 골짜기.

되린덕→도리원리(桃李源里)

뒷꼬댕이: 마을 뒤(북쪽) 높은 지대.

사지난골: 마을 뒤(북서쪽) 골짜기.

아래 쇠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위: 사지난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윗 쇠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4) 이목리(梨木里)

노리(蘆里) 북쪽 골짜기 마을.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모두 중심 마을 노리(蘆里)에 속하였듯이 이목리(梨木里)도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蘆里)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됨.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도장생이: 마을 제일 끝(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돌배나무골: 마을 입구에서 왼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동우(東宇)전문대학 뒷편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무박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발버덩: 마을 입구 왼쪽의 벼덩. 바깥벼덩이 줄어서 발벼덩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샘골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江原道) 지사였던 박 경원씨가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서낭골: 마을 북쪽 골짜기.

서낭봉: 서낭골에 있는 봉우리. 서낭당이 있음.

아랫 골짜: 마을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동(梨洞)→이목리(梨木里)

이목동(梨木洞)→이목리(梨木里)

장자골: 마을 북쪽 골짜기. 장자, 즉 부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없고,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장재골→장자골

큰말사니: 마을 뒤(북쪽) 큰 골짜기.

화전(花煎)바위: 큰말사니에 있었던 바위. 근래에 마을 앞 샘골천

제방 축조 공사 때 화전(花煎)바위를 깨어서 제방 석축에 썼으므로 지금은 바닥만 남아 있다. 원래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예전에 이 바위에서 화전(花煎)놀이를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5) 척산리(尺山里)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모두 중심 마을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므로 척산(尺山) 역시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蘆里)에서 분리하여 척산리(尺山里)라고 하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됨.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尺山)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몇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농사철에 마을 뒷(남쪽)산의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둘째, 마을 뒷(남쪽)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등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세째, 동네 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피륙이 마치 산처럼 쌓인다고 하여 척산(尺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모두 척산(尺山)의 척(尺)이 ‘자 척(尺)’자 이므로 이것과 관련하여, 또는 자가 옷감을 재는 기구이므로 옷감, 피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후대에 한자(漢字)의 뜻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은 마을 뒷(남쪽)산에 있는 목우(牧牛)재라는 고개와 관계가 있다. 고개 즉 재가 있는 산이므로 젯산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척산(尺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척(尺)자는 재(자와 재는 서로 통한다.)를 나타내는 훈(訓)을 딴 글자이며, 재 즉 고개라는 의미

로 전국 각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고척동(高尺洞)」: 서울시 구로구(九老區)

고척리(高尺里): 이천군(利川郡) 신둔면(新屯面), 개풍군(開豐郡) 광덕면(光德面), 성천군(成川郡) 구룡면(九龍面)

산척면(山尺面): 중원군(中原郡)

산척리(山尺里): 화성군(華城郡) 동탄면(東灘面), 진천군(鎮川郡) 덕산면(德山面), 보은군(報恩郡) 수한면(水汗面)

문척면(文尺面): 구례군(求禮郡)

척지리(尺旨里): 합천군(陝川郡) 신안면(新安面)

척령리(尺嶺里): 보성군(寶城郡) 벌교읍(筏橋邑)

척산리(尺山里): 울진군(蔚珍郡) 기성면(箕城面)

척치리(尺峙里): 완도군(莞島郡) 금일읍(金日邑)

척북리(尺北里): 청원군(淸原郡) 남이면(南二面)

중척리(中尺里): 청원군(淸原郡) 현도면(賢都面)」

가매소(沼):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가매소 개울 입구에 있는 소(沼). 소(沼)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가매소 개울: 마을 서쪽 학사평(鶴沙坪)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목우(牧牛)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노적(露積)바위: 암지동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달마봉(達磨峰)→6. 설악동(雪嶽洞), (2) 설악산(雪嶽山), ② 봉(峰)의 달마봉(達磨峰) 참조.

딴봉: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 남동쪽 마을이다.

마치장(馬馳場): 마을 동쪽 산기슭 벌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딴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 만호 첨사(水軍 萬戶 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망태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명가산: 주봉산(朱鳳山)과 목우(牧牛)재 사이에 있는 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面)의 가산(家產), 즉 재산이라는 뜻의 면가산(面家產)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명당골: 마을 서쪽 가매소 개울 상류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상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한다.

모기재→목우(牧牛)재

목우(牧牛)재→6. 설악동(雪嶽洞), (1) 설악(雪嶽) 관광 단지 일대의 목우(牧牛)재 참조.

목우(牧牛)재 개울: 마을 남쪽 목우(牧牛)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青草川)을 형성한다.

물안골: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朱鳳山)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에너레: 암지동 끝 달마봉(達磨峰) 북쪽 기슭에 있는 큰 암반.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하며, 범이 미끌어졌다고 하여 범에너레라고 부른다.

병풍(屏風)바위: 마을 서쪽 망태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사당골: 마을 동쪽 응끌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패를 지어 다니며 노래와 춤을 팔던 사당패들이 거처한 데서 이름이 유래된 것 같다.

서산태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사태가 난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암지골→암지동

암지동: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암지골, 암지동(洞)으로 변화함.

양짓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 개울 남쪽 마

을.

응달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 개울 남쪽 마을.

작은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큰 너레골에서 왼편(북쪽)으로 갈라진다.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작은 늑동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늑동골 바로 남쪽이며, 현재 공설운동장이 건설 중에 있다.

주봉산(朱鳳山)→5도문동(道門洞), (1) 상도문리(上道門里), 주봉산(朱鳳山) 참조

주왕재→**주봉산(朱鳳山)**

증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척산교(尺山橋): 청초천(青草川) 상류 척산(尺山)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

큰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왼쪽(남쪽)으로 작은 너레골이 갈라진다. 너레는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큰 늑동골: 마을에서 서북쪽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바로 남쪽이 작은 늑동골이다.

파명당: 목우(牧牛)재와 달마봉(達磨峰) 사이에 있는 터. 현재 송신탑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보니 그곳에서 학이 3마리가 나와 한마리는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강선리(降仙里) 쪽으로, 다른 한마리는 보광사(普光寺) 쪽으로, 또 다른 한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탑상골: 마을 서쪽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 탑(塔)이 남아 있다.

(6) 신흥리(新興里)

5. 16혁명 후 군사혁명정부의 개간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 와서 뒷버덩에 새로 일으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1963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됨. 그러나 신흥리(新興里)라는 지명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상에→상에 동네

상에 동네: 학사평(鶴沙坪) 끝(서쪽) 마을.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鶴沙坪)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新興里)에 소속 되었으며, 신흥리(新興里)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新興上), 또는 상에, 상에동네라고 불려짐.

신흥교(新興橋): 청초천(青草川)에 놓여 신흥2리(新興二里)와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다리.

신흥상(新興上)→상에동네

신흥2리(新興二里): 노리(蘆里)와 척산(尺山) 사이의 뒷버덩에 위치한 마을. 신흥1리(新興一里) 밑(남동쪽)에 해당하므로 신흥하(新興下)라고도 부른다.

신흥1리(新興一里): 설악(雪嶽) 프라자 패밀리 타운 바로 앞(남동쪽) 마을. 뒷버덩에 건설된 신흥리(新興里)의 중심 마을이다.

신흥하(新興下)→신흥2리(新興二里)

(7)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학사평(鶴沙坪)은 전통적으로 행정상 독립된 동리를 이루지 못하고, 척산리(尺山里)가 노리(蘆里)에서 행정상 분리되기 전 까지는 노리(蘆里)에 속했고, 1942년 노리(蘆里)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된 후에는 척산리(尺山里)에 소속되어 오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되었다. 노학동(蘆鶴洞)의 학(鶴)자는 학사평(鶴沙坪)에서 따온 것이다.

학사평(鶴沙坪)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

려와 앓는 별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별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발이라고 한다.

자활촌(自活村)은 학사평(鶴沙坪) 별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1961. 8. 23 군사 혁명 정부에서 깡패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모아서 학사평(鶴沙坪) 별판에 집단 이주시켜 농토, 농기구 등을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으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자활촌(自活村)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구복암(求福庵): 심방골에 있는 암자.

딱사발→학사평(鶴沙坪)

딱사벌→학사평(鶴沙坪)

명당골: 학사평(鶴沙坪) 남서쪽 골짜기.

미시령(彌矢嶺): 속초(束草)와 인제(麟蹄)를 연결하는 고개. 정상 부는 해발 808m로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와 인제군(麟蹄郡) 북면(北面) 용대리(龍垈里)의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미시령(彌矢嶺) 동쪽의 경우는 원암교(元岩橋)까지만 속초시(束草市) 노학동(蘆鶴洞) 지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 지역이다.

이전부터 동서를 연결하던 교통로였던 것을, 1960년 경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었다. 이때 당시 이승만(李承晚) 대통령이 직접 미시령(彌矢嶺)이라고 써서 세운 비석이 아직도 정상에 남아 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도로가 훼손되어 사실상 폐로로 방치되었던 것을, 1989년에 다시 개통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간성군(杆城郡)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시파령(彌時坡嶺)：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고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彌時坡嶺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

성종(成宗) 24년은 서기 1493년으로 500년 전 사실을 말하며, 소동라령(所冬羅嶺)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한계령(寒溪嶺)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쪽에 있었던 또 다른 고개였다. 그리고 이 미시파령(彌時坡嶺)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파른 고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다음의 기록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도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 표기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다만 설명 끝 부분에 속칭 여수파령(麗水坡嶺)이라고도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던 것이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미시령(彌時嶺)으로, 그후 읍지(邑誌)들에는 미시파령(彌矢坡嶺)과 함께 미시령(彌矢嶺)으로 표기되어 있다. 관찬 기록이므로 이전 기록을 참고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조선(朝鮮) 후기에 이미 현지에서는 미시파령(彌時坡嶺) 대신 미시령(彌矢嶺)으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간 기록인 《택리지(擇里志)》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 미시령(彌矢嶺) 대신 연수령(延壽嶺)으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연수파령(連水坡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민간에서는 미시파령(彌時坡嶺), 미시령(彌矢嶺)보다는 연수파령(連水坡嶺), 연수령(延壽嶺), 여수파령(麗水坡嶺)으로 더 많이 불리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청초호(青草湖)를 과거에 관청 기록에서는 쌍성호(雙成湖)로, 민간 기록에서는 청초호(青草湖)로 기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읍지(邑誌)에 ‘금폐불행(今廢不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시령(彌矢嶺)은 그후 거의 이용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연수파령(連水坡嶺)이란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그렇지만 미시령(彌矢嶺)이란 이름은 읍지(邑誌) 등의 기록에 존속되어, 오늘날 미시령(彌矢嶺)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미시령(彌矢嶺) 인근 마을에서는 지금도 미시령(彌矢嶺)을 큰령이라고도 부른다.

미시파령(彌時坡嶺)→미시령(彌矢嶺)

심방골: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 달마봉(達磨峰)으로 이어진다.

여수파령(麗水坡嶺)→미시령(彌矢嶺)

연수령(延壽嶺)→미시령(彌矢嶺)

연수파령(連水坡嶺)→미시령(彌矢嶺)

옹장골: 마을 남서쪽, 심방골 서쪽 골짜기. 계조암(繼祖庵) 밑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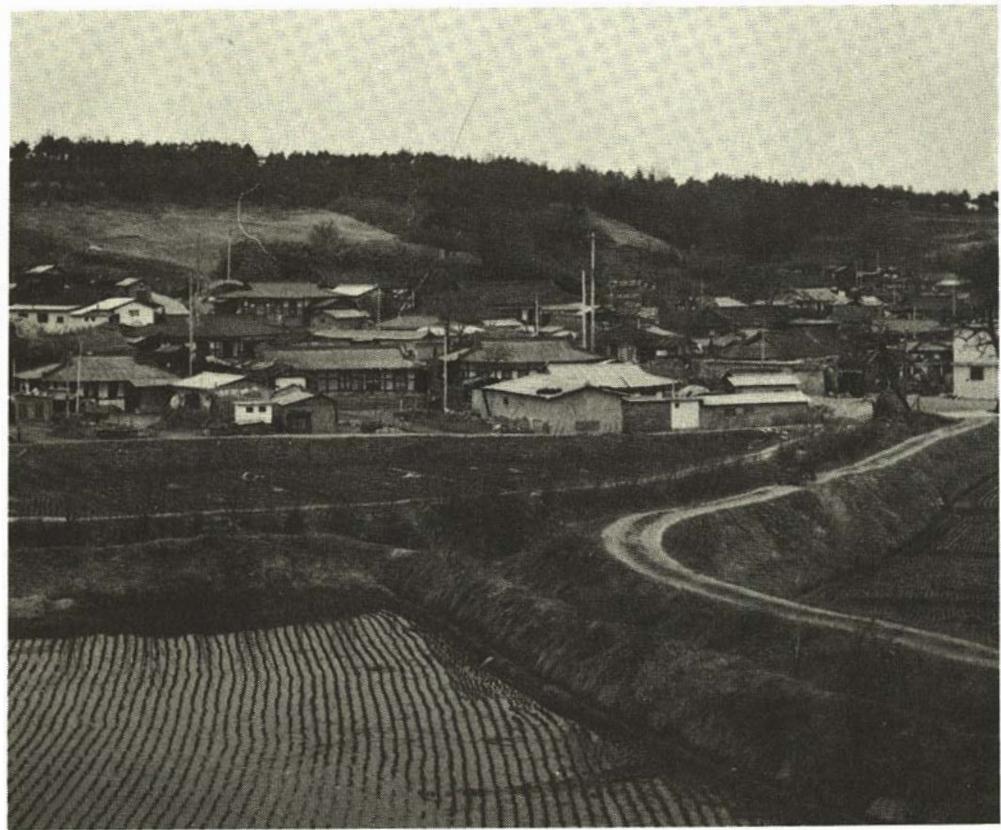
원암교(元岩橋): 용촌천(龍村川) 상류에 놓여 속초시(束草市) 노학동(蘆鶴洞) 학사평(鶴沙坪)과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를 연결하는 다리.

코끼리 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코끼리처럼 생겼다.

큰령→미시령(彌矢嶺)

호랑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8. 장사동



8. 장사동(章沙洞)

속초(東草)의 다른 지역이 과거에 양양군(襄陽郡) 영역이었으나, 장사동(章沙洞)만은 과거에 고성군(高城郡) 영역이었던 곳이다. 물론 속초시(東草市)가 생기기 전까지, 즉 1962년 까지는 이곳은 물론이고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죽왕면(竹旺面)까지 양양군(襄陽郡)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들어와서, 전통적인 간성군(杆城郡)을 없애고, 그 영역을 위에 있는 고성군(高城郡)과 밑에 있는 양양군(襄陽郡)에 분속시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장사동(章沙洞) 지역은 전통적으로 간성군(杆城郡) 토성면(土城面) 소속이어서, 다른 속초시(東草市) 지역과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랑호(永郎湖)도 중간 지대이니까 양양(襄陽)과 간성(杆城)고을에 반씩 속했던 것이 아니고, 모두 간성군(杆城郡) 소속이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東草)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東草市)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1) 사진리(沙津里)

장사동(章沙洞)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로 되어있던 것이, 1973년 속초시(東草市)로 편입되면서 장천리(章川里)와 합쳐져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줄어서 사진리(沙津里)라고 불리어졌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사진리(沙津里)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

고, 영랑호(永郎湖)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永郎湖)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沙津里)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어졌고, 이것을 한자(漢字)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사야지(沙也只)라는 표기는 지금도 지명에 더러 남아있는 이두식 표기가 틀림없다. 야(也)는 잘 알 수 없으나, ‘사(沙)’자는 모래 사(沙)이니 훈(訓)을 취한 것이고, 지(只)는 기와 서로 통하니 뜻과는 관계없이 음(音)을 취한 것이다.

고개 넘어 용촌리(龍村里)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용포동(龍浦洞)과 사촌리(沙村里)가 합쳐져서 용촌리(龍村里)가 되었는데, 사촌리(沙村里)도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역시 모래기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사진리(沙津里), 즉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는 나룻모내기, 용촌리(龍村里)의 사촌리(沙村里)는 촌모래기라고 하여 두 마을을 구분한다.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東草) 고등학교 뒷편(북쪽) 산. 강장군(姜將軍)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姜將軍)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역시 용촌리(龍村里) 용지호(龍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고바우: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밧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輪船) 같다고 하여 윤선(輪船)바위, 두꺼비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고바웃개→고밧개

고밧개: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고바우 부근의 갯가. 고바위가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고바웃개라고 하던 것이 고밧개로 변하였

다.

고추골：마을 서쪽, 영랑호(永郎湖)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국사봉(國師峰)→8. 장사동(章沙洞), (2) 장천리(章川里), 국사봉
(國師峰) 참조.

나룻모래기→사진리(沙津里)

노적(露積)바위：영랑호(永郎湖) 동북쪽 마을 안에 있는 바위. 바
위 형상이 노적(露積)가리를 쌓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깨부서
져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 있다.

된봉→국사봉(國師峰)

두꺼비 바위→고바우

모래기→사진리(沙津里)

박쥐바위→빨주박

버리개：흰고개 밑(동남쪽) 갯가. 벌판에 위치한 갯가라는 뜻의
벌개가 변해서 버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빨주박：영랑호(永郎湖) 북쪽 가에 있는 바위. 바위에 박쥐가 서
식하므로 박쥐바위라고 하던 것이 빨주박으로 변했다.

빡쟁이：영랑호(永郎湖) 북쪽 엄달개 서편 골짜기.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사진리(沙津里)

서낭골：속초(束草)고등학교 뒷 골짜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고 한다.

서낭산：흰고개 동편, 해경 충혼탑(海警 忠魂塔)이 위치한 산. 산
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신선바위→고바우

엄달개：현재 속초(束草)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 엄달개
는 엄달이라는 이름의 갯가라는 뜻이다.

윤선(輪船)바위→고바우

해경충혼탑(海警忠魂塔)：우리나라 해안을 지키다 순국한 해양
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 흰고개 동편 서낭산
에 위치하고 있다.

형제바위: 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형제암(兄弟岩)→형제바위

황새: 영랑호(永郎湖) 북쪽,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흰고개: 마을 북쪽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용촌리(龍村里)와 연결되는 큰 고개.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2) 장천리(章川里)

영랑호(永郎湖) 서쪽 마을. 본래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장천리(章川里)였으나 197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속초시(束草市)에 편입되어 사진리(沙津里)와 합쳐져 장사동(章沙洞)이 되었다.

장천리(章川里)는 본래 ‘노루 장(獐)’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글 장(章)’자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獐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그 후 장천(章川)으로 변한 것이다.

갓버덩: 마을 동쪽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한 버덩.

건녕골: 마을 동남쪽 골짜기.

고추골: 마을 북동쪽 국사봉(國師峰) 바로 서편 골짜기.

골논골: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과 방축골 사이의 골짜기.

국사봉(國師峰):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용촌리(龍村里) 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해발 84m. 영랑호(永郎湖)에서 보면 호수 바로 북서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국사봉(國師峰)이다. 국사봉(國師峰), 또는 그것과 발음이 비슷한 이름은 전국에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낭신을 제사지내는 서낭당,

성황당(城隍堂), 즉 국사당(國師堂)에서 유래된 것이다. 국사봉(國師峰)은 지금도 민속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사봉(國師峰)을 다른 말로 발음이 비슷한 국수봉, 국시봉이라고도 하고, 봉우리가 봇같이 수려하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고도 한다. 또 사진리(沙津里)에서는 된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리(沙津里) 마을에서 볼 때 마을의 된, 즉 뒤 안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국수봉→국사봉(國師峰)

국시봉→국사봉(國師峰)

노루내→장천리(章川里)

노루목고개: 장천리(章川里)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고개와 마찬가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므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던바우: 마을 동쪽 던바우골에 있는 바위.

던바우골: 마을 동쪽 샘치골 다음(동쪽)에 있는 골짜기.

독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바우: 독골에 있는 바위.

된봉→국사봉(國師峰)

뒷골: 마을 뒷(북)쪽에 있는 골짜기.

망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는 마을 진입로가 망태골로 뚫려 있었음.

물안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편(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우배기: 큰령골에서 왼편(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현재 설악(雪嶽) 프라자 패밀리 타운의 바로 뒷편임.

방축골(防築)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에 방축(防築)이 있었다고 한다.

불매앞: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매(풀무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불을 일으켜 쇠를 녹였으므로, 풀매를 사용하는 대장간 앞이라는 의미로 풀매앞이라고 하던 것이 불매앞으로 변화되었다.

샘치골: 마을 남동쪽 전녕골과 던바우골 사이의 골짜기.

서낭봉: 마을 앞 큰령골 입구와 독골 입구 사이의 산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싱싱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쪽(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물안골 서쪽이다.

안산: 마을 앞산. 예전에는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음.

여바우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우골이 줄어들어서 여바우골이 되었다.

여우바우: 여바우골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굴이 있는데, 예전에 여우가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치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령골: 마을 서쪽으로 뚫린 큰 골짜기. 큰령, 즉 미시령(彌矢嶺)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 바위: 큰바위골에 있는 바위.

큰 바위골: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타앞: 마을 남쪽 불매앞과 망태골 사이를 가리키는 말.

필자 주상훈(朱尚勲)



현, 속초고등학교 교사

속초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束草의 地名

1990. 2. 20 초판 1쇄 발행

1990. 8. 20 초판 2쇄 발행

발행처 : 속초문화원

발행인 : 지일권

편집인 : 최재도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비매품〉

